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JUN 7 1982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840 1982년 6월3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hursday, June 3,1982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정 서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매기 없어 구입자들 큰 소리

부동산업계 침체

판매자는 81년도 가격고집·경제불안·수요감소

81년도 기록적인 호황으로 재미를 본 부동산업자들이 올해는 크게 위축돼 있다. 온타리오의 부동산시장에 나온 집중 팔리지않고 남아있는 집의 수는 메트로·토론토, 미시사가, 피커링, 마캄지역을 합쳐 기록적인 숫자인 2만2천여채.

부동산매매가 이같은 침체를보인 이유를 업계는 팔려는 측이 81년도 수준의 가격을 기대하는 것과 수요자들이 언제 해고 당할지, 임금을 삭감당할지, 혹은 이자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장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매입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6개월동안 "팝니다"(for sale)간판만 내걸었다 뗐다 한 집 주인들은 특히 미시사가, 스카보로, 토론토 서쪽에 많고, 최근에는 한 집 건너 "for sale" 간판이 붙어있는 것이 예사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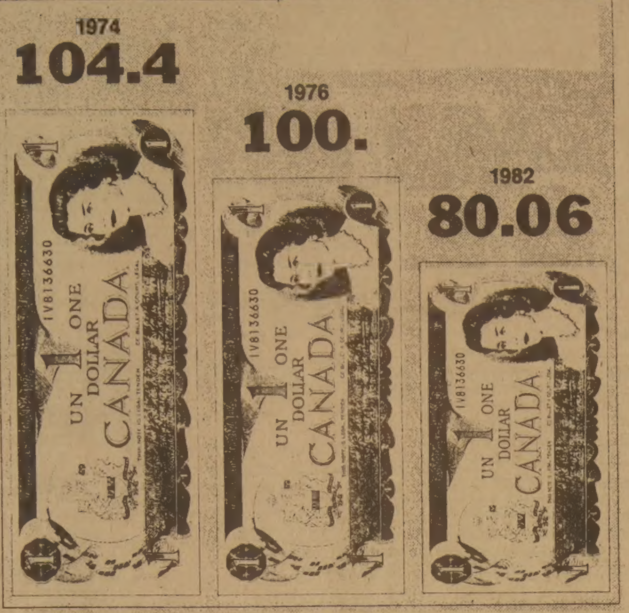
금년에 3개의 미시사가, 에진코트, 이슬링턴소재 사무소를 폐쇄한 W.H.보슬리(Bosley) 부동산회사 사장 보슬리씨는 1년전에는 $15만 내지 $20만에 집을 내놓아 22만5천내지 $25만에 팔수 있었으나, 이제는 $48만에 내놓은 집이 $40만에 팔리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5월중 어느 부동산업자도 팔수있는 MLS(Multi listing Service)가 팔은 건물은 2,951채였던데 비해 올해 5월중은 1,897채 였고, 81년 7월중 메트로내 주택의 평균거래가격은 $104,000였으나, 올해 5월 평균 가격은 $96,381이었다.

"1년전 $129,000에 리스트돼 최소 $120,000은 받을수 있었던 미시사가의 한 집은 최근 현찰 $90,000로 낙착됐고, $174,000에 나온 하이·파의 한 집은 모욕적인 $11만의 오퍼를 받았다"고 말한 한 부동산업자는 지금은 사는 사람의 시장(Buyer's Market)으로 살 사람들은 마구 가격을 깎아 마치 집을 거져라도 가질 수 있을것 처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바클리부동산의 조지·부딘씨는 "작년에 40채를 팔았으나, 올해는 지금까지 4채밖에 못팔았다. 토론토에서 그나마 매기가 좀 있는 집들은 특히 더프린×세인트·클레어지역의 $5만~6만짜리 집 또는 $20만이상의 호화주택들이다. 그 중간의 집은 도대체 매기가 없다"고 말했다.

지금이 바로 집을 사둘때?



◆캐나다 달러의 가치하락

추락원인은 일기불순

군수송기사고, 악마의 숫자「53」

(서울2일=연합) 탑승군인 전원이 사망한 C-123수송기의 추락원인은 일기불순 때문이었다고 한국국방부가 2일 발표했다. 이 수송기는 지난1일 하오 49명의 공수부대원과 4명의 공군승무원을 싣고 훈련차 모 기지를 떠난 직후 예상못한 악천후로 서울남쪽에 있는 성남시 서쪽 7Km지점에 추락,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윤성민 신임 국방부장관은 좀더 정확한 사고원인을 계속수사중이라고 말했다.

군용수송기 추락사고는 금년들어 2번째로서 지난 2월5일에도 이번과 같은 기종의 C-123기가 53명을 실은채 제주도 상공에서 추락, 전원몰살 했었다.

사망자 명단은 발표되지 않았다.

대 미화 환율 사상최저

$1.00=US$.8003, 정부는 "걱정말라"

(오타와) 앨런·맥케큰 연방재무상은 1일 캐나다 달러화의 가치가 미화1달러당 80.03센트로 사상 최저로 하락한데 대해 국민들이 지나친 신경을 쓰지 말도록 호소했다.

이날 하원에서 야당으로부터 국가경제의 공신력을 추락시킨 장본인이라는 비난 받은 맥케큰재무상은 "달러화의 가치하락은 일시적 현상으로 미국달러의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캐나다화 뿐 아니라 24개 OECD(경제협력기구) 회원국의 통화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캐나다달러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안정세에 있다고 주장했다.

맥케큰재무상은 미국달러가 5년째 최고의 강세를 기록한것은 미국이 물가고 억제에 성공하고, 최근의 단기 고이자율 정책에 실효를 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중앙은행은 관례대로 달러가치 하락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으나,「국민심리에 중요한 달러당 80센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통화시장에 개입했다」는 설이 끈질기게 돌고있다.

1일 오전 토론토은행간 거래에서 캐나다화는 미화 1달러당 80.03센트로 떨어져 1931년의 80.08센트보다 0.05센트 낮았다. 중앙은행은 이날 오후 보유미화로 캐나다돈을 매입, 종장시세는 80.06로 올랐다.

은행간 도매시장에서는 캐나다화 $1.249가 미화1달러로, 시중은행의 소매시장에서는 $1.25가 미화1달러로 거래됐다.

1974년에는 캐나다달러의 가치는 미국달러보다 높아 미화 1백달러당 104달러였다.

350여 축하객 붐빈

맘모스 실협 이전파티

한인실업인협회(회장 차선겸) 이전 파티가 지난1일 하오3시-10시30분 7시간반의 장시간에 걸쳐 큰 잔치로 열렸다.

4년간 토론토한인회관에 사무실을 두었던 실협은 지난 4월30일 한인상가 중심부인 627A BLOOR ST. WEST. 한국외환은행 블루어지점 2층으로 이전, 이 건물은 명실공히 경제적면에서 한인상가의 중심건물이 됐다.

이날 이전자축회에는 교포단체장등 유지와 실협과 유대가 있는 도매업자등 약50개의 외국인회사 간부진, 협회원등 350여명의 연인원이 하객으로 모인 대잔치로서 통돼지 2마리를 구워 잔치상에 올렸다.

◆실협사무실이 블루어로 이전됨을 축하하기위해 모인 한인인사들.
이병권 체육회장, 이형인 전 실협회장, 장순채 번영회장등의 모습이 보인다.

본사 사령

⊙광고부장 송광호
명 광고국장
⊙인쇄부장 박정서
명 공무국장
⊙편집국 조미래기자
명 편집1부장
⊙편집국 유승민기자
명 편집2부장

〈82년 6 월 1 일자〉

=리틀 야구=

82년7월3일(토)
코로네이션·팍
70년1월1일이후 출생 자녀.
교회팀, 한글학교팀, 지역팀등 출전함.
연락처 : 한국일보사
전 화 : 533-2361

윤자중 전 교통장관

무역진흥공사장에

(서울2일=연합) 한국정부는 윤자중(53) 전 교통부장관을 9일자로 대한무역진흥공사사장에 임명했다.

현재의 사장은 공군참모총장등을 지낸 장성환장군이었다.

신임 윤사장은 51년 공사졸업, 79년 공군참모총장, 81년 장성으로 예편했다.

실협및 외환은행과 주위의 한인상점들

Euclid Av.
Bloor St.W.
Palmerston Av.
시영주차장
새한칼라
식당한국관
은하보석상
도나츠·숍
버라이어티
블루어안경
서울여행사
외환은행
실협협회
627-627A BLOOR W.
삼미떡집
킴스카메라
스피디인쇄
거북이선물센타
식당서울집
최태권회계사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 찬 영
변 호 사
537-3171
537-3174
484 BLOOR ST.W.
(Bloor & Bathurst)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Merrill Lynch Royal Securities Ltd.
금·은·증권·Bonds·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 : 감상욱
증권은 경기변동에 따라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 경기회복 6개월 전부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일, 이십년만에 한번 올수있는 절호의 기회가 증권투자에 오고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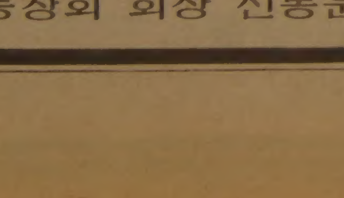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야유회

봄맞이 야유회를 아래와 같이 갖고저 하오니 동창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시어 하루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 6 월19일 (토)
오전11시 정각
장 소 : ELDORADO PARK
문의처 : 신동운 ☎ 497-4405
서동준 ☎ 863-99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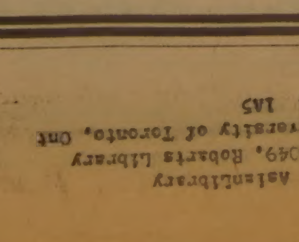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동창회 회장 신동운

교회 예배처 이전안내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저희 시민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교회 예배처를 이전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교민여러분의 배전의 지도와 관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새예배처 : Riverdale Presbyterian Church
주소 : 662 Pape Ave. Toronto (Pape 써브웨이 덴포스남쪽 건너편에 위치함)
● 이전일 : 1982년6월6일(주일)
● 예배시간 : 매주일 오후2시정각

1982년 5월 일



시민교회당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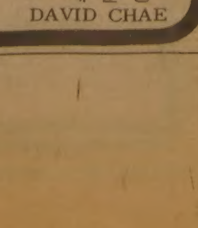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 주택·대지·아파트
* 가게·상가·사업체
* 이민이나 면세를 위한 투자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가능

각종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신속 정확하게 성심 성의껏 노력 하겠아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희망합니다.

—경 력—
★수퍼마켓 소유 운영2년
★무역회사 소유 운영2년
★부동산업 종사 7년이상
★케네디안 대학 졸업


채 준 성
DAVID CHAE

(416) 497-8900 (B)
(416) 633-7892 (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김미영연구소 개설2주년 기념행사

봉산탈춤 무료강습회

◆김미영씨

김미영한국민속무용연구소는 개설2주년 기념으로 오는7일부터 17일까지 봉산탈춤무료강습회를 갖는다.

하오3시30분에 시작, 매일1시간씩 지도할 김미영(36)씨는 한국민속, 특히 탈춤에 관심있는 16세이상 성인은 누구나 환영한다고 말했다. 준비물은 움직이기 편한 복장과 덧신.

강습장소는 1065 St.Clair Ave.W.

79년 이민온후 온타리오 주정부 허가를 얻고, 2년전 돈밀즈×세퍼드에 무용연구소를 차려 현재 20여명의 문하생을 두고 있는 김씨는 그동안 주로 캐네디언들에게 한국무용을 소개하는데 주력, 토론토대학 한국학재단이 주최한 한국민속예술제 출연및 최근에는 세네카칼레지에서 공연을 가졌다고 말했다.

김씨는 6살때부터 한국민속무용계의 원로인 부친 김윤학(60)씨에게서 고전무용을, 임성남씨에게서는 현대무용을 사사받았다.

김씨는 이화여대무용콩쿨에서 2번 1등수상 경력이 있으며, 원각사와 국립극장에서 여러번 개인발표회를 가졌다. 김씨는 또 수도여사대 부속국·중·고교에서 무용강사를 지내는 한편, 무용연구소(66-67년)도 운영했다. 이곳에 오기전 2년동안 일본·유럽등지를 순회했다.

"무용과 더불어 있으면 모든 근심·걱정이 사라진다"는 김씨는 한국민속무용의 정수를 이곳에 소개, 보급시키는 것이 간절한 꿈이라고 2일 말했다.

앞으로 발표회도 계획하고있는 그녀는 한국에서는 문하생을 3년간 연습시켜 공연을 했으나, 이곳에서는 1주일 한번연습으로는 3년해도 겨우 무용의 맛만 보여줄수 있을뿐이라고 예술인의 태도를 보였다.

이번 강습회가 끝난후, 1달반 예정으로 한국에 돌아가 아버지가 운영하는 무용강습소에서 지도하며 7월에는 일본노인대학초청으로 아버지와함께 일본서 공연할 예정이다.

이번에 강습할 봉산탈춤은 황해도 봉산지방에서 전하여온 가면 무용극으로서 고려말기에 대략완성되어 약500년간 전승된 것이다. 7과장(막)으로 된 이 탈춤은 사자춤이 있는것이 특색이며, 내용은 산대놀이와 거의같은 불교에의 귀의, 양반에대한 모욕, 파계승에대한 풍자와 증오, 그리고 축첩제도의 갈등등으로 되어있다.

김미영 한국민속무용연구소의 전화번호는 499-5079이다.

연방증권관리위원

민족상수상자 권박사

본사 제정 제2회 한인민족상 학술부문 수상자인 사스카치완주 트자이나대학 교수 권오율 박사가 1년반전부터 사스카치완주 증권관리위원으로 활약하고 있음이 알려졌다.

권오율 박사

증권관리위원회(Security Commission)는 일반주식, 사채, 공채거래등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기관이다.

사스카치완주에는 이 위원이 2명 있는데, 다른 1명은 백인이고, 동양계로는 권박사 뿐이다.

권박사의 임기는 내년 3월말까지이고, 재임될 수도 있다.

컴퓨터 강좌

6월4일, 연사2명

캐나다한인컴퓨터협회(COSKA) 제21회 정기세미나가 오는 6월4일(금)하오7시에 빅·호드팍고등학교(크리스티×불루아)에서 열린다.

세미나 내용은 김재신(노스턴·텔레콤회사근무)씨가 "Data Base Management System"에 대해서, 박흥수(로얄뱅크근무)가 "Remote Meter Reset System"에 대해서 강의한다.

컴퓨터협회는 많은 회원들의 참석을 바란다.

문협 5월 월례회

주제발표 "시론"

캐나다 한국문인협회(회장 조정대)는 27일 밤 박동규교수댁에서 가진 5월 월례회에서 「시의 단순성과 복잡성」을 주제로한 백경락회원의 연구발표를 들었다.

문협회원 12명이 참석한 이날 월례회는 현대시의 난해성문제를 주로 다루고, "쉬운 표현속에 깊고 높은 것을 담고, 예술성과 서정성을 살리는 시가 바람직한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요크한글학교

81－82학기 종강식

요크한글학교(교장 김춘탁)는 지난 29일 학부형등 100여명의 교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81~82학년도 종강식을 가졌다.

이날 종강식에는 학생들의 합창·연극등의 순서도 있었다. 요크한글학교는 오는 10월에 종합학예회를 갖는다.

한국인의 자랑 고려청자 ①

정동훈

◆편집자주 : 오는 11일부터 세타멜화랑(King & E. of Parliament)에서 도예전을 가질 정동훈씨가 한국 도자기예술에 관한 특별기고를 보내왔다.

1천년역사로 세계 도자기의 종주국임을 자랑할만한 한국의 도예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며, 어떤 역사를 가졌는가를 정씨의 글을 통해 되새겨본다.

도자기 예술을 흔히 불의 예술 또는 흙의예술이라고도 한다.

흙으로 만들어 불에 구워진것들을 도자기(Ceramirs)라 하며, 여기에 예술성(Art)과 공예성(Craft)를 곁들였을때에 도예(Ceramic Art, Ceramic Craft)라고 한다.

도자기를 크게 도기, 자기, 석기, 토기의 네가지로 구분하며, 두들겨서 가장 강한 쇳소리를 내는것이 가장높은 온도(1300c)에서 구워진(Porcelaine, Celadon) 자기이다.

토기(Clay Ware)는 기와나 화분종류이며, 도기(Earthernware)는 타일이나 위생도기 종류, 석기(Stoneware)는 자기보다 거칠은 점토를 사용한 것으로 한국의 항아리 종류이며 북미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는것이다.

1천년의 역사를가진 도예 종주국인 우리나라의 도자기에 대해 우리모두 알고 연구하여 자랑스러운 도예국의 국민임을 자부하였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 글을 써본다. 한국의 도예를 크게 셋으로 구분하면 첫째는, 신라토기라고 할 수 있겠다. 선사시대부터 발전되기 시작한 토기제작은 통일신라 시대에 전성했으며, 주로 일상용기들과 건축물에 쓰이는 기와등이 대표적이다.

유약(Glaza:유리질)을 사용하지않고, 단지 소나무 연기를 쏘여 회색계통의 색채를 띄우며 투각이나 인화물등을 주로 장식하였다. 특히 불교의 영향을 받아 절의 증축에 쓰였던 기와의 제작방법은 기술의 극치에 달하며 숫기와·암기와에 쓰여진 연꽃무늬등의 문양은 현대의 문양사 연구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의 건축학계로부터 지대한 찬사와 관심을 받고있다.

둘째는, 고려청자 시대이며, 신라토기제작술을 바탕으로하여 중국의 청자제작방법을 받아들여 고려시대의 특징인 고려상감청자로 발전시켰다. 상감청자의 제작은 전남 강진, 전북 부안 등지를 중심으로 한국이 갖고있는 우수한 질의 태도(Clay)와 소나무를 사용한 전통적인 가마(Kiln)에 의해 우리민족 특유의 형태와 색채로 세계 제일가는 도자기를 발전시켰던 것이다.

◆필자 정동훈씨

상감청자라함은 엷은 밤색계통의 점토를 성형한후 약간건조 후, 구름, 당초문향등을 조각한 후 흰색의 점토를 묽게하여 붓을사용 여러번 칠한후 넓적한 조각칼을 사용 벗겨내면 흰색의 선이 선명하게 남게되는 방법이다. 그것을 완전히 건조한 후 약 800~900c에서 초벌구이를 한후, 투명유약을 입힌다음 다시 1300c의 고온에서 소성한후 3-4일 식힌후 꺼내면 완성된다.

고려청자를 비색 또는 비취색이라 하였는데 이는 한국의 맑은가을 하늘과 같은 연한 푸른색을 띄우고 있으며, 옥색이라고도 하는 이 색깔은 가마속에서 소나무의 작용과 산소의 영향에의한 환연염(Reduction firing)이라하는 분위기에서 이 비색이 만들이지며 자칫 실수하면 밤색계통의 색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옛부터 내려오는 관습으로 가마에 불을 지피는날은 목욕재개하고 떡과 돼지머리등을 가마앞에놓고 불신에게 신명을 내려달라는 고사를 지냈으며, 여자를 가까이 하지않고, 가마 주변에도 여자는 못오게 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정성과 정신력의 극치에서 비로소 비색의 청자가 만들어졌던 것이다.

귀족들만 사용하였던 상감청자가 여러번의 전쟁으로 국력이 쇠퇴해지면서 점차 간략한 문양과 간단한 방법으로 변하여 분장화청사기라고 하는 분청시대에 접어든다. 이는 흑색의 점토를 거칠은 붓으로 분장한후 투명유약으로 소성한 것들이다.

현재는 일본에서 성행하는 방법이며, 미국등지에서도 많은 도예작가들이 사용하고 있다. 서민적이면서도 간략한 장식등이 예술의 경지에 이른 분청사기 작품들은 귀족적인 상감청자와 더불어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예술품들이라 하겠다.

구자승 개인전

구상화 37점 선보여

80년부터 토론토에서 작품활동을 한 서양화가 구자승씨가 지난 28일부터 세타멜화랑에서 개인전을 열고있다.

오는 9일까지 계속될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37점의 작품들은 유화·수채화·스케취들로 모두 구상화.

81년 온타리오미술대학(OCA)에서 회화를 공부한 구씨의 이번 전시회는 인기가 높아 2일까지 이미 3점이 팔렸다.

80년 토론토에서 추상화가인 부인 장지원씨와 함께 부부전을 가졌던 구씨는 지난 4월 워싱턴에서 개인전을 가져 좋은 반응을 얻었다.

〈꽃〉, 〈소녀〉, 〈도자기와 포도〉, 〈흰색의 전설〉등의 작품들은 $250에서 약$3,500까지 호가된다. 파리나 이탈리아등 유럽에서 전시회를 갖기를 꿈꾸는 구씨는 오는 가을 귀국, 전시회를 가질 계획이다.

◆살바도레·달리같은 초구상계열의 작가를 좋아한다는 구자승씨가 전시장에서 작품 〈흰색의 전설〉과 함께 포즈를 취했다.

본격추리소설「제5의 사나이」

작가 "소설엔 여자가 빠지면 재미없죠"

일간발행 1주년특집

40대주인공은 변신의 명수!

◁8일부터 연재 시작▷

새연재 추리소설 「제5의 사나이」를 집필하게된 작가 金聖鍾씨는 『웅대한 스케일의 대작을 만들어 보겠다』고 다짐했다。

본보 〈캐너더뉴스〉시절 「제5열」로 독자들을 열광시켰던 본격추리소설가 김성종씨가 또하나의 문제작 「제5의 사나이」로 독자들앞에 재등장하게 됐다.

작가 김성종씨(41)는 텁수룩한 머리와 거뭇한 구레나룻이 호감을 주는 안경너머로 털털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새 연재물에 대한 소감을 털어놓았다.

그는 한국문단의 현역작가중 보기 드물게 "긴 호흡'의 작가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추리소설 영역에서는 단연 두드러진 작가로 꼽히고 있다.

75년 10월부터 장장 5년간이나 「일간 스포츠」에 실린 「여명의 눈동자」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장하림·최대치·윤여옥등의 주인공을 통해 파헤친 대하소설로 독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74년「한국일보」200만원현상 당선작「최후의 증인」으로 시작된 그의 추리소설은 「제5열」을 비롯, 「일곱개의 장미송이」, 「Z의 비밀」, 「죽음을 부르는 소녀」등의 작품을 발표하면서 날로 원숙해져 가고 있다.

그의 장편소설은 10편, 책으로는 22권을 내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일이 끝나 어두워지면 한잔하고 어울려 노닥이다가 또 집에 들어가 잠자고 …이렇게 보내는 하루하루. 우리의 생활속에서 세상은 별다를게 없이 비쳐진다. 그러나 그 속을 하나하나 들여다볼라치면 참으로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평범한 일상의 껍질을 쓰고 일어나는게 바로 세상이다.

신비한 영웅이 없는 소시민화된 사회에서 베일에 가린채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가공할 복수극을 펼치는 인물. 그가 바로 수수께끼의 인물, 제5의 사나이다. 과연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 왜 그런 행동을 하게되는지가 독자와 작가가 함께 풀어야할 이 소설의 테마이다."

추리소설의 전개방법은 대개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처음부터 범인이나 사건의 줄거리가 노출되고, 그것을 하나씩 풀어 나가는 스타일. 또 하나는 완전하게 꾸며진 수수께끼가 사건의 연속 속에서 반전을 거듭하며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는 스타일이다.

여기에 국제간의 정치음모나 경제문제에 얽힌 다국적인 기업간의 갈등, 비뚤어진 사회구성원의 암약등을 그 소재로 담을 수 있기에 짜릿한 흥미와 함께 강한 사회고발의 소리를 담을 수 있는 것이 추리소설의 강점이다.

김씨는 외국작가중 「오데사·파일」, 「자칼의 날」로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는 영국인 프리데릭·포사이스를 좋아한다.

"「제5의 사나이」 첫머리는 30대중반의 미모여인이 나타나면서 시작된다. 소설에서나 세상사에서나 여자가 빠지면 재미가 없다. 구성도 잘 안된다. 주인공 제5의 사나이는 40대 초반의 독신남자로 등장하나 변신을 수없이 하므로 그가 누군지 쉽게 알 수 없다. 일반적 시각에서 볼 때 그의 행동은 정당하게 이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외롭고, 또 향수를 느끼게 하는 이방인같은 남자이다. 마치 나처럼…"하면서 김씨는 싱긋 웃는다.

41년 전남 구례 탄생, 구례농업고교를 나와 66년 연세대 정외과 졸업, 69년 〈조선일보〉신춘문예에 「경찰관」이 당선, 문단에 데뷔했다. 그간 「창조」잡지사, 「독서신문」사 기자등 9개의 직장을 옮기며 일했고, 최근은 아내·두아들과 부산에 살면서 창작에만 전념하고 있다.

기자생활을 오래한 탓인지, 그의 문장은 간결하면서도 유연하다는 평을 듣고있다.

『제5의 사나이」 등장인물

와이즈맨 골프대회

1위, 최상수 78

코리안와이즈맨즈클럽주최 와이즈맨 캔디지역 골프대회에서 회원 최상수씨가 78점으로 그로스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2일날 글렌이글골프장에서 열린 친선대회에는 회원및 초대골퍼 29명이 참석했다.

와이즈맨즈의 알파(30살~40대)및 베타클럽(40살~50대 인사)이 합동으로 골프대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원 수상자는 모두 알파클럽 소속이다.

◆그로스
회원 1위 최상수 78
회원 2위 송인문 83
회원 3위 김인환 85
게스트 1위 전석규 75
게스트 2위 엄주억 87
게스트 3위 천용기 90
◆넷
1위 웨인·맥미클 69, 93 (캠브리지클럽 소속)
2위 김진수 70 93
3위 안기정 70 98
◆롱게스트 백경락
◆니어리스트 박경덕
◆럭키 레슬리·친 (노스욕클럽 소속)

교민동정

◆김청자=미용실·다리치코와휴(Daricci Coiffure)근무 헤어·디자이너인 김씨는 21일부터 28일까지 파리에서 열리는 인터내셔널·헤어디자이너·콘벤션 참가차 지난주 출국했다.

김여사가 소속된 「인터내셔널·코즈메틱·캐나다」는 김여사등 캐나다대표단의 항공료와 체재비를 부담했다. 김여사등 미용사들은 골드웰·코즈메틱 화장품회사가 주최하는 세계최대의 헤어쇼에서 세계 헤어·디자인 챔피언대회도 갖는다. 20년경력의 김여사는 배형도씨(한인장로교회장로)의 부인.

한국일보
533-2361

축 일간지발행 1주년기념

○교민사회의 목탁인 토론토 한국일보

○정의를 위해 불굴의 투지로 더욱 힘차게 뻗어나가길 하나님께 기원합니다.

토론토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희민 및 교인일동

외무장관에 이범석씨

국가안전기획부장에 노외무

(서울2일=연합)전두환대통령은 노신영외무장관을 국가안전기획부장(전 중앙정보부)에 임명하고 외무부장관에 이범석청와대 비서실장을 기용했다고 청와대 이웅희대변인이 2일 발표했다.

국가안전기획부 유학송부장은 일신상 이유로 최근 사임했다.

지난21일 「장여인사채사건」으로 11명의 각료를 교체시킨 대폭개각에 뒤이은 이번 인사는 장여인사건을 다루기위한 5일간의 임시국회가 끝난후 발표됐다. 임시국회에서 민한당등 야당은 유창순총리를 비롯한 주요 경제각료들의 해임결의안을 제출했으나, 여당 민정당에의해 부결됐다.

기획부장 교체는 사채사건 사전탐지에 실패한 정보조직의 재강화에 역점을 둔것으로 보인다.

외교관출신을 정보계통의 책임자로 앉힌것은 극히 드문일이다. 이자리는 주로 정보계통의 군인출신들이 맡아왔다.

노씨의 임명으로 한국정부는 해외정보 수집에 더욱 역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범석실장의 외무장관임명은 난항에 빠진 일본파의 60억달러 정부차관도 염두에 둔 것이다.

이 차관은 노장관이 1년전 제의했으나, 양국은 타협을 보지못하고 있다.

작년 일본측 보도에 의하면 일본정부는 협상타개를 위해 양국 외신부장관의 교체를 제의했었다.

이범석장관은 외무부의 전실장, 통일원장관등을 지낸 직업외교관이다.

전두환대통령이 사령관으로 있었던 한국서는 군보안사령부가 안전기획부보다 중요한 정보기구로 활약하고 있다.

◆이범석장관 약력

25년 평양출생, 61년 외무부국제기구과 과장, 71년 적십자총재로 남북적십자회담 한국대표, 76년 주 인도대사, 80년 통일원장관, 81년 평화통일위원회 정책자문회의 사무총장겸 청와대비서실장.

◆노신영 안전기획부 장관

30년 평남 강서출생, 서울법대졸, 73년 주 인도대사, 74년 외무차관, 76년 주 제네바대사, 80년 외무장관.

이민의 문화적· 사회적 자아(Identity)를 밝혀 가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종강파티 · 학예회 두 Y 한글학교

웨스톤Y어린이학교(교장 김창열)는 5일(토) 하오7시 메이스트·롬국민학교에서 교육위원등 내빈과 학부모들 참석아래 종강파티겸 학예회를 연다. 학생수 약100명.

한편 Y한글학교(교장 김창열)도 12일(토) 아침10시30분, 빅포드고교에서 종강파티겸 학예회를 연다.

한인 Y영어교실 학생들도 이날함께 종강파티를 가진다.

50 여명 모여 성균관 야유회

재캐나다 성균관대학동문회(회장 김영태)는 지난 30일 야유회를 가졌다. 81년초에 창설된 성대동창회는 약 60여명의 동문이 있으나 이날은 50여명이 모였다.

◆이정태(알버트)군

이정태군 전국과학전 1 등

출품작 "정밀 전자기억기"

3년째 토론토지구 과학전에서 1등으로 입상한 이정태(16)군이 이번에는 캐나다 전국에서도 1등, 상금 $300과 월드·북사전을 부상으로 받았다.

과학에 뛰어난 재능과 관심을 가진 캐나다 각지의 출전자 2백여명이 지난 5월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욕대학에 묵으면서 경합한 이번 대회에 정태(Albert)군이 출품한 작품은 정밀전자 기억장치"(Scanning Electron Memory)". 컴퓨터 개발품으로 웬만한 책한권의 내용은 1"×1"의 크기에 담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전국대회에서 1등은 처음인 이군은 7년전 이민온 이영재씨(품질관리 엔지니어)와 전현숙씨의 2남1녀중 차남으로 이토비콕의 빈센트·매씨·컬리지엣 10학년이며, 형 정민군(찰스)은 작년도 한인대학생수학경시 대회에서 1등했다.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는 이군의 학교평균 성적은 90점이상.

평소에도 취미로 과학프로젝트를 즐기며, 장래에 전자공학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식 자 안 내〉

컴퓨터 사진식자기

★ 가격저렴

★ 빠른 서비스

한국일보사,

☎ : (416)533－2361

〈독자의광장〉

양식(糧食)과 양식(良識)

조정이 (불광사 신도)

먼동이 트는 6월의 푸르름 때문인가! 언제나 그렇듯이 "아!"하는 하품의 고뇌는 오늘도 하루를 보내야 하는 삶의 갈등.

언제부턴가 바뀌어진 나와 나의 시간. 온종일 귀틀린 지폐조각으로 나의 모두를 에워싸고 씨름하여야 하는 나의 일과. 오늘도 무엇이 다를까.

입안에 깊숙이 배어진 지폐내음.

"하이(Hi)"로 시작해서 "생큐"로 끝나는 일과. 다시금 되돌아 보는 삶. 정말 무엇을 위해서 나는 사는 걸까? 양식(식량)이냐, 양식(참지식)이냐? 많이도 반복하면서 외쳐보건만 난 아직 답을 얻지 못했다. 그러다 나에게 제일의 안식처는 아주 가끔이다.

시간을 내어 부처님을 찾는 날. 모든 사람이 아주 궁할때 "신"을 찾듯이 나 또한….

그러나 나는 기도할 때 아직껏 내 주위를 위해서 기도를 해본 일이 별로 없었다.

다급한 지금 이 현실에 기도를 하고있다. 좀 더 부(富)를 위해서일까.

지금의 번뇌에서 조금이라도 탈피하고 싶은 심정에서일까?

마음의 평화!

언젠가는 나도 부처님께 식량아닌 참지식을 나에게 주십사 하고 기도할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지폐조각에 하루를 맡기면서 부처님께 내 모두를 사해보리라.

메트로·토론토 공장 폐업 늘어 41% 가 화잇·칼라

메트로·토론토의 총근로자수는 전체인구(2백2십만)의 절반가량인 1백만명이며, 10명중 4명꼴이 사무직종사자였다.

메트로·토론토 기획국에서 작성한 고용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총근로자수는 1,062,191명, 그 중 41.3%에 해당하는 439,034명이 화잇·칼라(사무직종사자)이며, 그 다음이 제조업 30만명, 소매업 184.212명, 공공기관근무자및 기타 137,876명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는 총6만3천개, 70년에서 81년의 10년동안 23만개의 직업이 새로생겼다.

기획국장 존·바우어는 기자회견에서 메트로의 많은 제조공장들이 문을 닫고있어 상대적으로 사무직종사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71년이래 메트로는 6만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잃었다.(그 중 3분의2는 토론토 시에서). 그러나 스카보로는 오히려 1,500개의 직업이 늘었다.

절반이상(58%)의 사무직종사자들이 토론토시에서 일하며 노스욕은 가장많은 제조업종사자(29%)를 가지고 있다.

메트로의 소매업종사자는 전체의 17%이며, 이중 42%가 토론토시에 몰려있다.

비록 81년 메트로의 피고용인수가 1백만이 넘고있으나 실업률도 엄청나게 증가, 81년12월31일 현재 8만9천명으로, 1년전인 80년12월보다 40%나 더많은 실업자가 생겼다.

음악도 위해 여름캠프

정명화 · 경화 · 명훈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족 정명화·경화·명훈 3남매가 주최하는 한인음악도들의 여름철 뮤직·캠프가 뉴욕서북쪽 85마일지점의 몬티첼로·시티의 몬티첼로·스쿨오브·뮤직에서 오는 7월18일부터 8월24일까지 5주간 열린다.

13세부터 17세까지의 음악도들중 소정의 예비심사에 합격한자들에게만 실시되는 음악캠프의 수용능력은 25명으로 피아노8명, 바이올린10명, 첼로7명이다.

정씨남매의 어머니 이원숙씨가 총괄하는 이 캠프는 음악이외에 수영등의 오락시간도 있다.

한편, 29일 토론토서 한인교향악단과의 협연을 끝내고 30일아침 뉴욕으로 떠난 첼리스트 정명화씨는 "우리 자매들을 길러놓고 음악학교를 하겠다는것이 어머니의 꿈이었어요. 여름음악캠프는 매년 계속될것으로 압니다"라고 말했다.

등록금 및 자세한 사항은 모짜르트음악학원 윤호섭(416－881－8211)씨께로 연락하면된다.

선교 백주년기념 전도대회

전체 한인교회들의 연합행사

한국선교100주년기념 토론토연합전도대회(대회장 : 안병한목사)가 오는 11일~13일 저녁7시30분 박조준목사(서울영락교회 담임목사)를 강사로 크로스로즈·캐써드럴(Crossroads Cathedral 300 Queen's Dr. 〈401 & Jane St. E〉)에서 열린다.

토론토의 전 교회가 처음으로 빠짐없이 참가하는 이번 연합전도대회의 목적을 준비위원장 박희민목사(한인장로교회)는

1)100년전(1884년)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가 기독교를 전파한것을 기념하고,

2)토론토의 40여교회가 분열을 거듭하고 각교회 중심으로 활동하는것을 지양하고 교회안의 유대를 공고히하며,

3)믿지않는 교민들에의 선교함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전도대회를 위해 박재훈박사가 지휘하는 연합성가대도 이미 구성돼, 지난5월 2째주부터 한인장로교회에서 매주일 하오6시부터 2시간씩 연습하고 있다. 연합성가대는 각교회 성가대원으로 구성되며, 현재 13교회에서 성가대원을 보냈다.

강사로 초빙한 박조준목사(48)는 서울문리대, 장로교신학대학을 거쳐 프린스턴대학에서 신학석사, 미아주사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오랫동안 영락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전임 한경직목사가 은퇴한 후 지금까지 담임목사로 일하고 있는 박목사는 탁월한 설교가로 정평이 나있다.

이번 전도대회에서 나오는 헌금은 2세선교및 수양관 건립과 같은 토론토 전체한인교회를 위한 공동사업을 위해 쓰여진다.

〈장편연재〉

영원의 방랑객 ㊿

고 마태오

제4장 딴따라 미사의 파동

"그문제는 염려할것 없어요. 현재 부두에서 노동사목을 하고있는 카스롱미쇼 신부와 마르당 제3보좌신부로 하여금 부리노의가두복음전도사업을 지도케했다오. 그러니까 이두분신부의 지도아래 부리노의사도적 사업은 분명히 계속될거요. 그것을 나는 본당신부의 이름으로 약속하오. 나는 부리노의 가두복음전도사업을 앞으로「밋씨옹·드·가르티에」(지역전교활동)이라 이름짓고 최선을 다해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거요."

"그럼 저도 마음놓고 휴가를 다녀오겠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더 사려있는 신부로서 일할수 있게끔 많이 묵상하고 또 수양하고 돌아오겠읍니다."

"가서 휴식을 즐기고 돌아오시오. 요즘처럼 뉴스거리의 홍수시대에는 15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면 아마도 모르긴 하지만 언론계에서는 당신을 벌써 잊고 있을거요. 여기 많지는 않지만 이 휴가금을 갖고 내일 일찍 떠나도록하시오."

"이곳 캐나다가 제 고향이 아니고보니 당장 휴가를 떠날곳이 없읍니다. 저에게 생각할수 있는 시간 여유를 주십시오."

"당신의 휴가지는「라그·드 쌩 보누아」호숫가에 있는 성 베네딕도수도원으로 이미 내정되어 있소. 내일 아침부터 언론계에서 당신을 찾아 나설거요. 필요없는 번거로움을 당하기전에 휴가를 떠나도록 하시오."

"그럼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읍니다."

15일간의 휴가기간은 나에게 지루한 시간이었으나 나 자신의 영성면에서는값진 시간이었다. 15일간을한결같이 80여명의 수도자들과 함께 그들처럼 기도와 공부와 노동시간을 가지며 지냈다.

그것은 나에게있어 일종의 좋은 피정이었다. 아울러 내조국, 내고향이 아닌 이국에서 동족이 아닌 이국민들을 위해 사목할때순수한 내 정열과 양심만을 갖고 살아갈수 없음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그리고충동적인 내 감정을 자제하며 일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묵상했다. 그래서 나는 「현명한 덕」을 나에게 주십사고 주님께 많은 기도를 드렸다.

하여튼 15일간의 휴가는 한가롭고 좀 외로운 시간이었으나 새로와진 신심을 갖고 나는 본당으로 귀임했다.

내가 본당에 귀임했을때, 본당은 예상외로 잠잠했다. 나를 찾아와 부리노의 가두 복음전도에 대한 인터뷰를 신청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 당시는 공의회이후 보수파와 쇄신파간의 대립상태와 또 신부들과 수녀들이 줄을 지어 환속하는 뉴슷거리로 일종의 혼란을 겪고 있을 때였다. 그래서 부리노 사전 정도는 이미 뉴스메디아에서 잊어진 상태로 있었다.

미쇼 신부와 마르당 신부는 「밋씨옹·드·가르티에」의 지도신부로 임명되어 있었고, 그 지역의 국민학교 강당을 빌려 주일미사를 지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 두 신부는 보다 가깝게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기 위하여 사제관을 떠나 지역으로 나와 셋방살림을 차리고 자취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 지역 사람들은 이 두 신부님을 형제처럼 대하고 있었고, 그들의 셋방은 젊은이들의 집합소가 되어 있었다. 신앙적으로 죽어있던 그 지역이 퍽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거리를 오고 가는 사람들의 표정도 많이 밝아진 듯했다.

이 때 부리노·아스랑은 그 지역의 회장으로 임명되어 있었고, 휴가에서 돌아오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4장 끝〉—

고마태오 신부의 장편연재소설「영원의 방랑객」의 제4장 "딴따라 미사의 파동"을 오늘로써 끝내고, 작자의 사정으로 당분간 쉽니다.(편집부)

교 민 동 정

◆이인주(가톨릭신학생)= 3년전 서울대교구 소속 신학생에서 토론토대교구로 이적, 스카보로(킹스턴로드)의 성 아우구스틴신학교에 재학중인데, 6월5일(토) 토론토대교구 이민교회담당 보좌주교 암브로시오·M·앰브로직 주교 주례로 「부제」서품을 받는다. 장소는 성 말가렛·퀸성당(222 Ridley Boulevard: 애비뉴×윌슨) 「부제」품은 가톨릭신학생으로 신부(7품)가 되기까지의 7품급중 제6품으로 사제(신부)직전의 품급이다.

위급

911

◆주제가중 하나인「당신만이 필요해요」를 부르며 와벅스씨의 맨션 계단을 내려오는 와벅스씨와 애니.

새映画

애 니

언젠가는 친부모 나타나길 믿고…

10살짜리 애니는 미쓰 하니간(캐롤·버넷 분)이 관장하는 여아고아원의 고아.

홀로 사는 그녀는 남자의 사랑을 그리워하지만 그녀주위에는 온통 어린 고아들뿐.

그녀는 항상 술로 세월을 보내고 어린이들을 학대한다.

그러던 어느날 억만장자 와벅스씨(알버트·피니 분)의 여비서가 고아한명을 데리러 미쓰 하니간의 고아원을 방문한다.

일주일간만 고아를 자기집에 초대함으로써 자신의 이미지를 고쳐보자는 것이 와벅스씨의 목적.

그러나 와벅스씨는 애니를 사랑하게 되고 애니를 자신의 딸로 입양코자 한다.

와벅스씨의 의견을 들은 애니는 그의 고마운 제의를 거절하는데, 이유는 언젠가 친부모가 나타날것을 믿기때문.

애니는 친부모가 그녀를 버릴당시 목에 걸어준 목걸이의 반쪽을 갖고 친부모가 나타나기를 바란다.

와벅스씨가 애니의 친부모찾는 방송을 전국에 내보내자 수많은 가짜부모들이 나타나고, 미쓰 하니간의 나쁜동생이 미쓰 하니간으로부터 나머지 반쪽 목걸이를 얻어내 친부모로써 와벅스씨와 애니앞에 나타난다.

와벅스씨는 슬픈마음으로 애니를 보내나 가짜임이 들어나 결국 애니는 와벅스씨에게 돌아오고, 그의 딸이 된다는 해피앤딩.

대부분 영화비평가들의 악평을 받은 뮤지칼영화 「애니」이지만, 역시 「애니」는 따사롭고 깜찍하고 순진한 어린고아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손잡고 가볼만한 영화이다.

특히 무대위에서의 뮤지칼 관람기회를 갖지못한 어린이들에게는 물론 어른들에게도, 이번 영화는 저렴한 가격으로 「애니」를 감상할수 있는 좋은 기회.

나쁜 사람을 친부모로 알고 애니(에일린·퀸 분)가 그들을 따라 나설때 한숨짓고, 그들로부터 도망쳐 위기에 처한 애니가 구조될때 박수치는 어린이들을 볼때, 비평가들의 의견이야 어떻든 역시 애니는 어린이들의 친구임을 알게된다.

「애니」의 배경은 20년대 경제공황시대.

유명한 주제가 「투모로」를 비롯 귀에 익은 노래들과 흥겨운 춤이 어린이들을 더욱 재미있게 하지만, 어떤 경우엔 너무 춤이 무겁고 목걸이를 찾아낸 미쓰 하니간과 나쁜 남동생및 그의 걸프렌드가 신나서 춤추는 장면은 어린이들이 보기에는 부적합하게 추하기까지하다.

애니에게 영화구경을 시켜주러 나선 와벅스씨가 뉴욕 래디오시티홀에서 어린이들에게는 적합치않은 영화 「카밀」(그것도 1936년도 영화임)을 보여주는 것도 뭔가 어색한 장면.

그러나 존·휴스톤감독이 4천만달러를 들여 처음으로 만든 이 뮤지칼은 어쨌거나 흥행엔 성공.

뉴욕↔서울간을 週4回 運航합니다.

6月1日부터

金曜日便 新設!

대한항공을 세계적인 항공사로 키워주신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여름 여러분의 모국 방문을
보다 편리하게 모시기 위해
서울←→뉴욕간 金曜日便을
新設 하였읍니다.
한국으로 가실때는 더욱 편해진
大韓航空을 이용해 주십시요.
정성껏 모시겠읍니다.

*하계운항 스케줄 안내

*표는 6月1日부터 運航합니다.

KE 007	편명	KE 008
火·木·金*·日	요일	火·木·金*·日
23 : 55 ↓	뉴 욕	21 : 50 ↑
	(앵카리지)	
06 : 30+2	서 울	19 : 00

정성껏 봉사하는 우리 민족의 날개

KAL 大韓航空

예약이나 자세한 문의는 대한항공이나 각 여행사로 해 주십시요

대한항공 ☎ (416) 862-8250
390 BAY ST. SUITE 720,
TORONTO, M5H2Y2

●서울여행사 535-6004 ●신세계여행사 536-2155
●제일여행사 535-2377 ●한국여행사 531-4607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실협뉴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627A Bloor St. W.
Toronto, Ontario
M6G 1K8
Phone: 533-7923
533-8344

실협사무실 이전리셉션 대성황

—불루어 한인상가 새 사무실에서—

6월1일(화) 하오3시부터 8시까지 예정되었던 실업인협회의 불루어사무실 확장이전 리셉션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협회원 여러분과 한인사회 각계각층의 축하객및 현재 협회와 관계하고있는 50여 서양 회사의 간부진들로 화기애애한 가운데 애당초 예정되었던 시간보다 훨씬 늦은 10시반까지 계속됐다.

박인순 한인회장, 최승낙 외환은행장, 이춘식 무역관장, 한철환 한일은행 소장, 이병권 체육회장, 이영현 무역인협회장, 장순채 불루어번영회장, 원영신 동우회장, 각 신문사 발행인등 100여명의 외부하객과 200여명 회원하객들의 즐거운 실협잔치는 이곳 서양 제조업자및 도매업자들에게 또다른 우리 실협의 단결력과 그 저력을 과시한 좋은 계기가 되었다.

실협집행부및 이사회의 간부진은 무엇보다도 줄을 지어 찾아주신 우리 회원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에 협회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로서 무한히 감사하며, 한편으로는 가슴뿌듯한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점은 한인교포사회에서 가장 중추적이고 건설적인 단체인 본 실협인협회의 발전적인 잔치에 모국을 대표하여 존재하는 총영사관으로부터 단 한분의 하객이나 한마디의 축하의 말도 들을 수 없었음은 "옥의 티"라고 언급하였다.

본 실업인협회는 73년12월 이재영, 이홍준, 최광준, 전기석등 발기인들이 모체가 되어 한인상인협회를 발족하였으며, 74년12월 한인실업인협회(당시회장 권순창, 부회장 박찬도)로 개칭되었다.

그러나 실협이 오늘과 같이 대단체로 발전된 도약시기는 1977년 김병곤 3대회장(당시 부회장 김영대, 이형인)때부터이며, 그후 김영대 4대회장, 이형인 5대회장단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차선경 현회장은 언급하면서 지금 이야말로 우리 한인업자들이 이국사회에서 우리들의 권익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굳게 뭉치고 단결하여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고 소감을 말하였다.

성장하는 우리실협
성공하는 나의사업

협회 쿠폰써비스업무 강화

—협회원들의 적극이용 요망—

협회집행부는 그간 과대한업무량으로 인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써비스를 하지 못하였던 쿠폰업무에 대하여 이명신사무원의 신규채용을 기점으로 그 업무를 대폭 강화하고 협회원들의 많은 이용을 요망하고 있다.

현재 170여 회원들만이 협회의 쿠폰대행업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도 현금과 동일하며 대손님관계(Customer Relationship)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쿠폰취급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회원들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쿠폰은 뉴부런스익의 Nielson Clearing House와 토론토의 Herbert A. Watts의 두 회사를 통하여 청구할수 있는것이 대부분이나 협회를 통한 의뢰절차는 별항의 광고내용과 같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사무실로 문의하며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소정의 양식을 우송해 드린다고 한다.

(회원투고)

어떤 작은 경험

서 준 경

—81~82 마이노학키팀 스폰서를 마치고—

지난 4월28일밤은 하나의 작은 경험을 종결짓는 행사의 밤이었으며, 내가 몸담고 지내고 있는 이곳 캐네디안 콤뮤니티를 위해 베푼 나의 작은 기여에 대하여 만족으로 보답을 받는 순간이기도 하였다.

지난 하키시즌동안 내가 정하여준 초록색바탕에 흰글씨로 내 가게의 상호와 주소를 새긴 유니폼을 입고 열심히 뛴 선수 전원과 코치가 Minor Midget Division에서 우승을 하여 큰 트로피를 받았을때나, 이 팀을 스폰서한 나에게 팀과 같이 찍은 사진이 들어있는 상패를 받았을때 내팀에게서는 물론 만장의 박수를 받을때는 큰 보람을느꼈다.

Airport Holiday Inn에서 West Mall Minor Hockey Association 주최 만찬에 참석하였을때 테이블 2개가 내 상호이름으로 리저부되어 있어서 우리팀 선수 전원과 코치및 학부모가 같이 앉아 즐긴 저녁은 자랑스러운 시간이었으며, 특히 동행한 집아이에게도 좋은 경험을 안겨준 순간으로 우리 부자가 모처럼 즐긴 만찬이었다.

지난 씨즌동안 매일요일 아침마다 시합이 있었으나 (스폰서에게는 무료패스가 지급됨) 자주 가보지는 못했지만 막상 유니폼을 안입은 선수들을 대하니 7~8학년의 순진한 학생들이었다.

내팀과 같이 찍은 사진패를 가게에 걸어놓은 이후 안 사실이지만 거의 모든 손님이 이리저리 하키와 연관이 되어 있으며, 정말로 하키를 즐기고 있고, 이 나의 경험이 계기가 되어 손님으로부터 전보다 따뜻한 인사를받고, 그들과의 일원으로서 받아주는 듯한 노골적인 인상을 느낄 때는 그동안 선전광고문을 배포한 이상의 효과가 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가게에서 도둑취급을 하고, 항상 경계하던 거칠던 어린 손님이 자기도 이 협회 다른 팀의 선수라면서 회개하는 듯한 밝은 미소를 보내줄 때는 머리라도 쓰다듬어 주게 된다.

우리처럼 그지역내의 고정손님을 상대로 코너스토어를 경영할 경우는 우리가 그 지역사회를 위하여 보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라도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일부에서 말하는 돈밖에 모르는 "동양의 주이슈"라는 별명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혼자 생각해 본다.

이번 스폰서로서 지불한 금액 $225로서 얻은 너무도 값진 경험이었기에 회원 여러분과 나누어 보았다.

(필자: 실협이사회 홍보분과위원장)

축하의 화분·선물 보내주신곳

코리아타운번영회	한인회	장재춘
동우회	은하보석상	함덕상
무역관	한국관	Imperial Life(김홍량)
다우스꽃집	한국일보사	Dominion Small Wares
외환은행장,불루어지점장	무역인협회	Frito-Lay
서울여행사	거북이선물쎈터	Rosen Dairy
신의상사	한인신용조합	Panasonic Battery
종합보험대리점	강찬영변호사	RJR McDonald
승공문화협회	연합상사(김현모)	Van Nea Howers LTD.
동궁식당	민중신문사	M. Loebe Cash & Carry
미도파백화점	조남유	Intercity News
와이즈맨즈클럽	김진형	J. Michael Sales LTD.
호남향우회	김영대	

〈알림〉

○5월 첫주 〈실협뉴스〉에 보도된 바와 같이 Panasonic Battery회사와의 협약하에 60일간의 시험판매 기간을 설정하여(이익률 48.5%) 판매한 양만큼의 대금을 60일 이후에 지불하기로 되어 있으니 관심있는 회원은 협회사무실로 신청해 주기 바란다.

〈정정〉

○지난주말 실협뉴스중 Sales Tax 추가소식에서 스넥으로 먹는 케이크(Vachon Cake등)는 파세라고 세무서에서 답변했는데, 재차 문의한 바 커피등과 함께 스넥으로 써부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만 상점에서 파는 경우에는 판매세가 붙지 않는다고 하여 정정합니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해산 가까와온 다이아나—이젠 산모티가 완연해진 다이아나 황태자비가 18일 런던의 한 컴뮤니티센터 오프닝에 참석했다. 6월말이나 7월초가 예정일인 다이아나는 새아기가 아들이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런던)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프로축구 블리쟈드를 즐기자
입장권 예매처
한국일보사 533-2361
브랜돈스포츠 598-3732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감사의 말씀

지난 6월1일 당협회 사무실 확장이전 리셉숀에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시어 그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일선 집행부의 임원들을 격려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욱 협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그 뜻에 보답할것을 기약하며 우선 지상을 통하여 감사를 표합니다.

1982년 6 월 2 일

실업인협회 집행부일동

쿠폰써비스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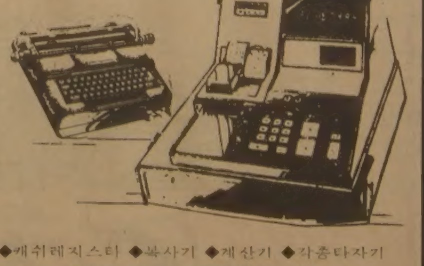
협회가 회원들에게 무료봉사해오고 있는 쿠폰써비스(분류, 현금청구, 발송) 작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신속히 사무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아 래 —

대상쿠폰 : 회원들 스토아에 접수된 Box 2140, Box 3000 전 종류
신청서류 : (1)처음 신청하는 회원
a)쿠폰취급상점 등록신청서 1 통 (양식 협회사무실 보관)
b)취급품목이 기재된 인보이스 사본 2 통
c)자세한 것은 협회로 문의바람
(2)청구양식을 구비하신 회원은 쿠폰과 함께 협회로 우송

실업인협회 쿠폰담당실

SKYWAY BUSINESS MACHINES
SPECIAL 30% OFF FOR K.B.A. Members
1. 각종전자계산기 수리
2. PAPER ROLL
(Each Case=100 Rolls)
3. NCR STYLE (수동식)



◆캐쉬레지스타 ◆복사기 ◆계산기 ◆각종타자기
SHARP 3M, MITA COPYSTAR, IBM
SALES-LEASING, REPAIRS & SERVICES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B)675-1295~6, (R)671-0938 김 인 환

새로 나왔읍니다

"CANTRAK" 4 CASE CAN UNIT
쉽고 능률적인 POP판매
현대적이고 기능적인 디자인
좁은공간을 최대한 활용
FineWood Work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676•1173 769•9468

3部長官 解任건의案 부결

民正전원否票、국민·議政 일부加勢

국회 본회의는 29일하오4시 張여인사건과 관련하여民韓·국민당및 議政同友會가 공동으로 제출한 金俊成부총리、羅雄培재무、鄭致根법무장관에 대한 책임건의안으로 表決에 붙였으나 모두 否決됐다。

국회는 이날 金翰宣(국민)金炳午(民韓)金在映의원(〃)으로부터 부총리 재무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안설명을 듣고 헌법(99條)국회법(105條)에 의거 無記名투표에 들어가 金부총리 解任案은 在席2백62명중 可1백52 否1백10표로、羅재무解任案은 可1백53 否1백07표로、鄭법무의 解任案은 可1백53 否1백49표로 각각 否決되었다。

이날 表決에서 民正黨의원들은 전원 否票를 던진반면 民韓黨의원들은 전원 可表를 던진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민당과 議政同友會의 일부의원들은 民正黨측에 同調、解任案에 반대했다。

한편 野黨이낸 國政調査特別委 구성안과 국무총리해임권고 건의안은 운영위를거쳐 6월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3部長官에 대한 解任案의 제안설명요지는 다음과같다。

▲金俊成부총리部分(金翰宣의원)=5·21改閣때 更迭될것으로 기대했던 부총리가 그대로 유임된 사실에 대해 국민들은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있으며 또한번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결과를 自招했다。

이번사건은 단순한 차원의 경제문제가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등 國政전반을 누란의위기로 몰아붙인 중대사건이며 최근 잇따라일어나고있는 일련의 사건들과 함축적인 상호관계가 있는 필연적인 사건이라는것도 부인할수없다。이사건은 현정부의 문제점으로 노출시켰다는 사실도부인치 못할것이다。

이번 개각은 이른바 구시대의 잔존인물을 주축으로한 시대정치적인사에 불과하다는국민인식을 면키어려울것이다。

▲羅雄培재무장관부분(金炳午의원)=張여인사건원인과결과에대해 책임져야될 경제장관이 그자리에 있는것은 語不成說이며 정치적、도의적으로보아 국민을 무시한 처사이다。정부는 建國이래 최대의 거액어음남발사건을 예방치 못했고 상대적빈곤을심화시켜 이 사건과같은 무질서한 재정정책을 집행했다。

貪金貪富 상태에서 共榮、日新과같은 기업형태를 유발시켰으며 은행과 기업에 대한 감독기능의부족으로 정부를 불신케 만들었다。

張여인사건은3천9백만국민에게충격을가한사건이며이는 維新獨裁이후 누적된 부정부패의 표출이다。

▲鄭致根법무장관部分(金在映의원)=검찰은 당초 이사건을 외국환관리법위반 혐의로 발표함으로써 사건을감추려했다。은행측은 어음詐取로 고발했으나 검찰은어음사취가 아니라고 張여인부부와 共榮등 관련업체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다。검찰은 대통령의 결심을얻은후에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는데 이는 정치권력의 庇護라는의혹을 면키어렵다。여론이 비등해지면서 중간발표가 나왔는데 20만원짜리 가짜美人圖를 1억2천만원으로 평가하는등 架空된 허구적숫자가나열됐다。

많은 정보수사기관은 사건발생1년이 넘도록 認知나감지할수 없었다는것은 무엇을 뜻하는가。張여인에게 2천여억원의 예금조성을 해주었던 큰손들에 대한 수사가 전혀없다。항간에는 前정부고위층이었던 K모씨、張여인과 라이벌관계에 있다는 B모여인등을 큰손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들에대한 수사가 전혀없다。張여인은 私債시장과 증권가의 代母로서 이미 大韓빌딩 호화별장을소유하고 상류층인사들과의 추문이 있어왔으며 사실상 이번사건의 主犯인데도 갑자기 從犯으로 그역할을 바꾼 저의는 무엇인가。검찰의 無能태만 職務유기 사건의 은폐 사건의 규모축소등 이해할수 없는 수사태도에 대한 책임을 진두지휘했던 책임자로서 그職을 물러나야 한다。

解任案표결 결과

在席		可	否
金부총리	262	110	152
羅재무	260	107	153
鄭법무	261	112	149

관계長官引責 이유있으나 사태收拾이 더욱중요하다

民正대변인 밝혀

民正黨 金鍾泰대변인은 29일하오 해임건의안 否決에대한 논평에서 『관계장관 引責요구에 상당한이유가 있으나 結者解之의 원칙에서 우선사태수습에 전념하라는것이 다수의원의 뜻이라고 해석 된다』고 말하고 『정부는 책임을묻는 적지않은 의견에 유의하면서과감한수습책등을마련해 어려운국면을 극복해나가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다수의 힘」이용한 沮止 국민의 要求 外面한처사

野黨서 否決반발

民韓黨과 국민당 議政同友會는 29일 副總理와 재무·법무장관이 국회에서 解任案이 否決된데대해 각각 성명을발표했다。

▲民韓黨金珍培대변인=정부스스로 이번사건을 建國이래 최대의 의혹사건으로규정하고서도 여당은 관계국무위원의 引責을요구하는 해임건의안을 다수의 힘으로부결시켰다。

與黨은 29일을 치욕의날로 기록했다。

이는 야당의 최소한의주장과 전국민의 熱火같은 요구에대한 정면거부이며 따라서 정부에대한 신뢰의 근거를어디에서 찾을것인가 묻고싶다。

▲국민당 李成一대변인=이번사건이 國基를 뒤흔들정도의 엄청난 충격을 국가와 국민에게 주고있다는 사실을 집권당스스로 잘알고 있으면서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할 관계국무위원들의 해임안을 부결시킨것은 국민을 배신한 처사이며 국가장래의 暗雲을 자초한 행위로 단정한다。

우리는 국가현실을본 집권당의 경직된자세와 안일한 태도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野圈이 공동제안한 총리사퇴권고결의안과 국정조사特委구성결의안이 여당의원들의 신념있는 결단력에의해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를 촉구한다。

民韓議員총회 否決대책협의

民韓黨은 29일하오 국회본회의가 끝난뒤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金俊成부총리등3각료해임안 부결에 따른 원내대책과 黨內문제등을 논의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巨額거래 왜몰랐나

질의 돈의行方등 계속추궁

◇表決에나선 議員들 汝矣島의사당으로 飛火된 「張여인突風」은 국회가 29일하오 3장관에대한 野圈의 해임건의안을 표결 처리함으로써 첫 관문을 넘었다。줄을지어 표결에 나서고있는 與野의원들。

物價따라 通貨운용

답변 下半期 경기回復전망

銀行法개정 지나친 간섭排除

「어음詐欺사건」내일常任委

〃金融기관 民營化 앞당겨 실시 하겠다〃

국회본회의는 29일張여인사건에 대한 이틀째對정부질의를 벌였다。국회는 이날로 對정부질의를 모두 끝내고 31일에는 10개常委를열어 張여인사건을 계속 추궁한다。이날 질의에서 鄭正出(民正) 李官炯(民韓) 林采洪(議政) 尹國老의원(民正)등은 巷間의 각종流言蜚語의 진상과 해소책▲정부의 對民신뢰회복▲기업倒産 수출부진등 不況극복 ▲私債및 證券시장대책등을 물고 張여인사건의 배후존재여부、자금의 行方등을 계속따졌다。

鄭正出의원(民正)은『이번사건이 발생하게된것은 관계각료의 방관내지無氣力때문이라고주장하면서 총리부총리·재무장관이 사태수습에자신이없으면 退陣할것을 요구하고『재조업은 法定관리、건설업은 任意관리가 원칙인데 共榮土建을 法定관리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李官炯의원(民韓)은『사건당초부터 가장近接된 비호세력으로 부각된 李圭光씨를 이사건과 직접 관련없는 알선수뢰로 구속한뒤 이사건을 실질적으로 마무리짓고 만것은 검찰의 破邪顯正의 사명을 망각한것아닌가』고 따지고『한 여인이 수백억원을私債시장에 놀리는데도 國稅당국에서 몰랐다는것은 權力의 견제때문인가 아니면 당국의 無能때문인가』고 물었다。

林采洪의원(議政)은『張여인이 지난1월과 3월 엄청난 사채를 들여 왔는데 당국은 이를 수사한일이 있느냐』고 묻고 私債업자등 올성수입자에 대한 課稅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尹國老의원(民正)은『이번사건은 官의 지나친 硬直性과 이로인한 금융의 硬直性과 제도적모순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이번사건으로인한 中小企業의 倒産과 그에따른 종업원의 生活對策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劉彰順국무총리는『일련의 불상사에대해 그근원적인 원인을 분석、종합적인 長·短期대책을 수립중이라면서『정부는 현재 경기회복을 위해 단기적으로 경기活性化對策을 취하고 있으며 산업구조의 회기적인 개선등 구조적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식개혁문제에 언급、『의식구조개혁운동은 역사적조감에 의해 얻어진 결론이기때문에 누구에 의해서도 해결해야될 민족적과제로서 이운동의 중단이란 있을수 없으며 더욱 시급히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劉총리는 또『공무원의 책임의식함양과 함께 先교육後승진 제도화를 추진하겠으며 부처간의 장벽을 해소하기위해 부처간 人事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金俊成부총리는 금융제부조리에 관해『과거 정부가금융에 너무 간여했음을 인정한다』면서『금융자율화와금융의 民營化작업을 하루빨리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기전망에 관해『4월중 경제지표가 플러스로 示顯되는 微動현상을 보였으며 현재의 微動현상과 과수출을 합치면 금년하반기엔 경기회복이 될것으로전망한다』고 말하고『통화운용은 物價동향을 지켜보면서운용토록하겠다』고말했다。

羅雄培재무장관은『은행의 自律性보장을위해 人事·예산간섭을배제하고 각은행에 경영위원회를설치하는등 銀行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까지 제출하겠다』고말하고『앞으로與信의정보수집체제를강화、은행의與信심사기능을보강하는한편 기업전체에대한 정보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밝혔다。

羅장관은『稅制의 불합리성을 인정、중소기업의 稅부담을 줄이기위해 직접세와간접세에 대한 稅法을 개정、늦어도 정기국회에는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鄭致根법무장관은『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명예를 걸고 수사를했고 힘 자라는대로 진상을 규명코자 했으며 사실대로 발표했다』면서『公訴유지를위한 보완수사를 계속하는 것이며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언제라도 또 누구라도 강제수사를 할것』이라고 말했다。

金東輝상공장관은『日新제강이 발행한 어음은24억원으로중소기업과의 去來총액은 30억원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들중소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 구체적인 방안을강구중에있다』고 말했다。

金장관은『日新이 해외로부터 계약후 수출불이행물량분은 3천2백만달러이고 수출계약해제가 3백30만달러라고 밝히고『이중 LC부분 1천4백만달러는 당초 受注업체인 종합상사들이 계속이행토록할 방침이며 日新의직접계약분 1천8백만달러는 同種업체나 종합상사등이이를 인계받아 이행토록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鄭노동부長官 〃관련 勤勞者등 生計 대책마련〃

鄭漢株노동부장관은 29일 국회본회의 답변을통해 日新제강과 共榮토건의 근로자生計문제에 언급、『張여인사건이후 滯拂임금이 발생했으나 日新의 생산직근로자 1천5백71명에대해 지난17일 3억2천8백만원을 지급해 완전청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이들 생산직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휴업중에도 임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중에있다』고 밝히고『새로운 제3차가 기업을 인수할때 생산직근로자들이 계속 취업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가 되어있으며 共榮토건의 경우는 임금에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徐相喆건설부장관은『張여인사건으로 해외건설受注 사업에 다소영향이있다』고 밝히고『외국은행 機資材 공급업체등이 신용거래에서 기피현상을 보일 우려가 있고 發注處에서 계약불이행등 불법행위를 보일우려가있으며 외국경쟁업체의 중상모략이 염려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533·2361

地平線

「張여인사건」이라던 사건이 어느덧 「李·張부부사건」으로 변했다。그러더니만 이제는 「李씨사건」이라고 고쳐불러야 하게되었다。사건 전모를 밝히는 자리로 검찰청에서 국회로、발표자의 직함은 검찰총장에서 법무장관으로 바뀌었다。수사의 추이를 좇는 눈이 조금은어지럽다。▼그래도 李哲熙라는 사람의 본모습은 제법 뚜렷해졌다。처음『남다른 탐욕、사치와 허영、낭비벽이있는』것으로 표현됐던 그의 성품은 『일찌기 소년시절부터 절도·사기전과가 있는 2중인격의 李哲熙』로 다시 규정된다。그리 하여、『세간에서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사건은 『단순한 張여인의 사기사건』이 아니라는 설명이다。어느『세간에선』사건을『단순하게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張여인사건』이면 단순하고、『李씨사건』이면 왜 복잡한지 더욱 알수가 없다。▼이보고들은 국회에서 정부측은『대다수 국민은 정부발표를 믿고 있다』는 뜻으로 답변했다。그렇지않은 층이 있다면、그것은『그릇된 풍문을 들은 그릇된 풍조』탓이라고한다。한데 정부의 국회보고내용중에는 『구야말로 믿고싶지 않은 대목이있다。그것은 李씨의 숨겨졌던경력이다。그가 근래 저지른 일은 경제를 뒤흔든데 그친다고나 하겠지만、그런 사람이 오랫동안 누렸던 자리는 너무 엄청나다。오금 저린 세월을 살아온 끝이아닌가싶다。▼검찰이 밝힌 그의 전력은 이렇게 재구성할수가 있다。태평양 전쟁이 나던 40년에 국민학교卒、만16살。일본에건너가 42년말 절도·사기범행。만18살。이듬해유죄판결、만19살。1년형을살고출옥、만20살。徵兵適令。이때 日軍에서 이「전과자」를 받아 주었다면 그의 해방전 군대경력은 1년 안팎。그 이듬해 46년 육사 2기卒、23살。교도소문을 나온 2년만에 그는「일본육군 나까노(中野)학교 수료」「일본대학 중퇴」의 장교로 변신했다。▼그의 경력은 이 두가지「조작」의 연장선위에 있다。「나까노의 後光」은 그를「정보의 제1인자」로 만들었다。「대학중퇴」도 효험을 보았다。47년 부산D大 정치학과 입학、2년중퇴。51년3월 서울D大3년 편입、이듬해 3월 경제학사」。어떻게 대학 3∼4년을 1년에 마쳤는지는 모른다。전쟁중 軍務틈틈이 면학한 보람은 아닐터이다。전쟁이 한창이던 때「學歷」을 생각했던 그는 분명「深謀遠慮」의 사람이다。혼란기미다 탐비꼼하는 나방의 지혜를 지녔다。▼그런 그가 이번에는 뱀꼬리를 잡았다。서부영화같으면、이대목에서「勸善懲惡」「事必歸正」을 박수치면 그만이다。그러나 이번 사건만은 선뜻 박수가 터지지 않는다。남의 말부를 빌면、「그릇된 풍조」가 너무뿌리깊은지도 모른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영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조 규 혁
종 합 보 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보라매 창립총회

친애하는 공군전우 여러분!
지난날 보라매의 광장은 싱싱하고 구김살없는 대화의 광장이었읍니다.
우리 다시한번 좌석을 마련하여토론의 광장을 마련하고저하오니 보라매 회원여러분께선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회원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일 시 : 1982년6월5일 저녁7시30분
장 소 : 한인회관
안 건 : 회칙통과, 임원선정, 기타사항.
문의처 : 767-2241 윤여경
638-0656 정해문
251-9587 위정남
630-2400 이광한

보라매 발기총회
회장 윤여경

축
일간발행 1주년

항상 꿋꿋한 자세로
불의에 굴하지 않고
공명 정대한 기사로 한걸음
앞 서가는 토론토·한국일보

오순절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세택및 교우일동

제4회
고교동창 배구대회

일 시 : 1982년6월19일(토)오전9시
장 소 : Boyd Conservation park
(입구바로 왼쪽 Poplar Hill)
Hwy 7 & 이스링톤(이스링톤 노스로 3km)
시 상 : 1 2 3등및 응원상 (트로피)
규 칙 : 6인제로 하되 9인제 규칙을 적용함.
참가비 : 팀당 $30(참가를 희망하시는 팀은 5월31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김인규(☎ : 960-5736
신강용(☎ : 251-6578)
※음료수는 주최측에서 제공합니다.

주최 : 서울사대부고동창회
후원 : 토론토한인배구협회
한국일보사, 브랜든스포츠사

다윈港·구수그린 밤새 奇襲

英軍, 전략要衝 2곳 점령

스탠리서 50㎞ 지점

아르헨, 必死의 反擊

【런던·부에노스아이레스28日外電=綜合】포클랜드에 상륙한 영국군은 수도 포트스탠리에서 50㎞ 서쪽에 위치한 아르헨티나군의 2개 주요군사 요충지인 다윈과 구스그린을 함락, 탈환했다고 영국국방성이 28일 발표했다.

이언·맥도널드 영국국방성대변인은 영국 제2공정연대를 주축으로한 영국군은 다윈과 구스 그린을 맹렬히 공격한후 이를 탈환했다고 밝히고 이 전투에서 아르헨티나군은 상당수의 사상자와 많은 포로를 남겼으나 영국군에는 경미한 사상자가 생겼다고 말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29日=李特派員】아르헨티나군은 28일 이슬라솔라데드(東포클랜드島)의 남북을 연결하는 地峽에 위치한 전략요충 다윈과 구스그린 지역에서 영국군과 하루종일 일진일퇴의 혈전을 벌이고 있다고 아르헨티나 합참본부가 밝혔다.

아르헨티나 합참본부는 영국군이 27일밤 산카를로스 지역에서 해리어전폭기와 프리기트함의 함포지원아래 동남쪽 30㎞ 떨어진 다윈지역을 기습, 28일 아침까지 아르헨티나군을 공격했다고 말하고 『아르헨티나군은 이날 상오 10시부터 공군기의 지원아래 반격을 개시, 하오에는 영국군을 퇴치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합참본부는 그러나 『영국군은 헬리콥터로 산카를로스 지역에서 다시 진출, 다윈과 인접한 구스그린지역을 공격, 아르헨티나군은 28일 밤10시 현재(현지시간) 이지역에서 영국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있다』고 발표했다.

아르헨티나의 국영 TV방송은 다윈과 그남쪽 3㎞ 떨어진 구스그린 지역사이에서 아르헨티나군이 약8백명~1천명의 영국군과 하루종일 격전을 벌이고있다고 전했다.

아르헨티나와 영국의 지상군이 대규모전투를 벌인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전투는 29일새벽까지도 계속될 것이라고 아르헨티나 군사소식통들은 밝혔다.

다윈과 구스그린은 이슬라솔라데드의 남북을 이어주는 팻줄모양의 좁은지협에 자리잡고있으며 특히 구스그린에는 활주로가있어 지금까지 아르헨티나군의 중요 전략기지로 사용되어 왔다.

영국군이 구스그린 지역을 장악하면 공항을 해리어전폭기및 시킹헬리콥터의 기지로 사용할수 있어 아르헨티나군의 주기지인 이곳에서 동북쪽 50㎞ 떨어진 푸에르토 아르헨티노(포트스탠리)를 공략하는데 결정적으로 유리한 요충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영국군은 또한 현재 사우드 조지아도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진 퀸엘리자베드호에 탑승한 3천5백여명의 증원군이 구스그린지역으로 위협부담없이 상륙할 수도 있어 결정적인 승리의 찬스를 잡을수 있을 것으로 군사전문가들은 분석하고있다.

아르헨티나의 한 고위정보소식통은 퀸엘리자베드호의 증원군이 상륙군에 가세한다면 『아르헨티나로서는 상당히 어렵게 된다』고 말하고 『아르헨티나는 이들의 상륙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덧붙였다.

◇로키트砲 옆 아르헨兵士 포클랜드에 주둔중인 아르헨티나군 병사2명이 로키트발사대 옆에서 얘기를 나누고있다。이 사진은 28일 아르헨정부가 공개한 것이다。【부에노스아이레스28日AP電送=聯合】

이란, 바스라市 攻擊

이라크 第2都市…마지막 攻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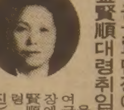
【베이루트·바그다드28日AP=聯合】이란군은 지난24일 이라크군으로부터 호람샤르항을 탈환한데이어 28일현재 약 20㎢의 이란영토를 점령하고있는 이라크 잔류부대에 대한 마지막 「소탕작전」을 펴는한편 각종 장거리포를 동원, 이라크 제2의도시 바스라를 공격하는등 실지회복작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함께 하세미·라프산자니 이란국회의장은 이날 이란군이 이라크와의전쟁은 양국의 국경선에 국한시키지않을 것이며 사담·후세인 바그다드정권이 붕괴될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을것이라고 선언했다.

라프산자니의장은 이란軍이 현재 호람샤르남쪽영토의 일부와 북쪽 헤르만샤유전지대를 점령하고있다고 지적, 이란은 타국영토를 점령할 의사는 추호도 없지만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정권이 붕괴될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라크는 28일 이란군이 장거리 포를동원, 이라크제2의 도시인 바스라시의 민간인거주지역을 무차별 포격하고있다고 비난하고 이라크도 이란이 계속 국경을 무시하고 공격을 가해올 경우 이란전역의 민간목표물을 공격할것이라고 경고했다.

육군女軍단장에 金賢順대령취임



육군여군단장에 金賢順대령(사진)이 29일 취임했다. 金단장은 후보생 11기로 임관, 여군사관과 여군훈련소 교수부장, 육본여군대대장등을 역임했다. 전임단장 柳石姬대령은 이날 보국훈장 3·1장을받고 퇴역했다.

아침에

작은손의 企業人

惡夢서 깨어나 신바람 낼수있어야

金鍾洙 〈德盛무역代表理事〉

오나가나 손이큰 여자의 이야기뿐이다. 신바람나는 이야기는 눈을씻고 보아도없다. 우리같이 손이 작은 기업인은 살아갈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요즘이다.

신문은 별로 「새소식」을 전해주지도 못하면서 한달씩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한다. 도대체 그여자의 손은몇 평방킬로미터가 되길래 그처럼 무궁무진한 것일까.

누구의 책임인가

전화벨이 울린다.

『김사장이오? 혹시 그여자에게 사채 얻어쓴것없소?』

나는 물론 그여자를 모른다. 그런 사채는 써본일이없다. 그런데도 세상사람들은 「김사장」도 피해자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모든기업이 다 똑같은것이 아닌데도 그들은한 개의 자(尺)를 가진 눈으로만본다.

하기는 요즘의기업인은 너나할것없이 똑같다. 힘들다는점에서 그렇다.

이것은 좀처럼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않는 국제경기에 주요원인이 있다. 그러나 엎친데 덮친격으로 사채 파동이 휩쓸면서부터는 외국인바이어들의 발걸음조차 주춤거리는 인상이다. 이것이 누구의 책임일까.

애꿎은 일이지만 신문이 원망스러운 때가 있다. 사실은 신문에실린 내용때문에 원망스러운 것인데도 신문을 탓한다.

그러나 신문이란 기묘한 것이어서 보지않고는 견디기어려운 것이다. 특히 나는 요즘 신문을보면서 새로운버릇이 생겼다.

보통 신문독자들의 눈에는 잘 뜨이지않는 「당좌거래정지자명단」을 무엇보다도 먼저 유심히본다는 점이다.

그것은 신문의 맨 아랫단에 아주작은 글자로 찍혀있지만 내게는 어떤 큰글자보다도 위력적이다.

그 명단에 나온 기업이나 이름이 아는 기업이든 모르는 이름이든간에 내게는 도무지 남의 일 같지가 않다.

그들도 어엿한 「사장」이요, 나역시 「사장」이다. 그들과 나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석이 없다. 불황은 누구에게나 같은 강도로 닥쳐온것이지, 선별적으로 강약을 주어 닥친것이아니다.

내게는 1천명이 넘는 종업원이 딸려있다. 이 종업원들과 함께 나는 10여년동안 이 회사를 경영해왔는데, 지금 한 철은 여인이 주물렀던 돈의 몇만분의1도 안되는 액수 때문에 매일 매일을 초조와 긴장속에서시달린다.

지금 이 순간처럼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 일이 일찌기 있었던가.

몇만원의 생활비 때문에 짜증을 내는 가장이 된것은 이런 글에 털어 놓을바가 아닐것이다.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여주기로한 「사장아빠」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제대로는 잠이 들지 않아서 밤마다 몇잔의 술로 잠을 부르는 기업인의 이야기는 이자리에서 털어놓을수밖에없다. 종업원 한사람당 1만원씩만 월급을 올린다고해도 1년이면 1억5천만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올해 회사형편으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회사형편이 여차여차하여 우리모두 참고 견디자』고 사정을 해야 할판인데, 또 그렇게 사실대로 나오면 종업원의 사기가 떨어져 오히려 손실이오게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외로운 자리―이 허약한사장의 답답한 마음을 누가 알아줄것인가.

「사장」의 이미지는 사회적으로는 더욱땅에 떨어진지 오래다. 어느 틈엔가 우리사회에는 기업인은 「절반쯤 현행범」인듯이 잘못인식돼 있음을본다.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문어발식으로 무리한 기업확장을 하면서 요행이나 바라는 기업인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세상 기업인이 하나같이 그럴수는 없는것이 아닌가.

사채가 겁나서 은행으로 돈이 몰리니까 예금은 늘어나고, 또 몇천억씩 돈이 풀려 인플레가 걱정된다는데 기업의 운영자금은 더 구하기가 어렵다. 이것이 문제인것같다.

요즘 기업인들끼리 만나면 이런말들을한다.

『부도가 나고 안나고는 백지한장 차이다. 요즘 사장들은 서울구치소담위를 서커스하듯 걷는다. 잘못 발을 디디면 울타리안으로 떨어지고 재수가좋으면 밖으로 떨어진다』

자금을 얻을까해서 은행을 찾아간다. 은행은 건전한 기업에대해 자금을 지원해주는것이 「의무」이다. 그러나 위축된 은행원은 겁부터 먹고있다. 담보를 말하지만, 담보가 많으면 헐값으로라도 팔아서 쓸일이지, 은행에 찾아가서 사정하지는 않을것이다. 기업의 자금이란 물이 흐르는것과 같다. 한 회사가 자금의 어려움을 겪으면 관련되는 회사들은 잇달아 고통을받게된다.

어떤기업이든 자금을 회사안에 쌓아두는기업은없다. 원료대금이든, 인건비든, 은행이자든 떼어붙여야 기업이 굴러간다. 유행가가 아니라도 『돌고 도는 빌붙』 일뿐이다. 그런 기초적인 자금이 지금 융통이 되지않는것이다.

이른바 사채파동―이것은 우리경제가 언젠가겪어야했던 홍역일수있다. 이 세상에 『우연히』일어나는 사건이란 없는법이다. 사건은 일어날만한 토양과 환경안에서 성숙하고 개화한다. 우리의 사회·경제·정치적 환경이 이번의 사건을준비하고 터뜨린것으로 이해할때, 언제까지나 우리가알면서 덮어둘수만은 없을것이다.

변두리 극장에가면 〈쇼도보고 영화도보고〉라는 간판을 볼수있다. 우리는 지금, 마치 변두리극장 관객처럼 張모 李모를 무대위에 올려놓은채 넋을잃고있다. 무대위에오른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자신의 허깨비(虛像)를 보고 전율한다.

우리는 과연 권력을 마다할 사람인가. 우리는 과연 돈을 외면할 사람들인가. 우리는 과연 권력과 돈을 마다하지않고 외면하지 않은 그들에게 돌을 던질수있는 사람들인가.

밝힐것은 밝혀야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공범관계에 있다. 이시대, 이 현실을 함께 살고있는 우리들은 한결같이 공범자다. 그러려면 악몽에서 깨어나야한다. 그러려면 밝힐것은 속시원히 밝히고 가슴을 열것은 탁터놓고 열어서 감정의 찌꺼기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아야한다. 믿을것은 믿고 버릴것은 버린 다음에 우리는 옛날의 許由처럼 귀를 씻을수도 있을것이다.

밤이가면 아침이 온다. 그늘이 있으면 햇볕도 있는것이다.

오늘 이 일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일에서 제3자일수는 없다. 우리모두는 이일의 공범인동시에 피해자임이 분명하다. 국민 모두가 가슴을 열고 신뢰감을 되찾을수 있어야한다. 그때에야 우리같이 손이 작은 기업인도 신바람을 낼수 있을것이다.

政局往來

"大企業, 권력 눈치나 슬슬…權力도 대기업 뒤닦던 時代지났다"

◆田中內閣도 5억원사건으로 退陣

「張여인국회」 2일째인 29일본회의는 전날의 느슨했던 분위기와는 달리 殺氣한 與野의원들이 경쟁이나 하듯 정부를 호되게 공격。

첫질의에 나선 郭正出의원(民正)은 『이번사건은 땀흘리며 진실되게 살려는 대다수국민을 좌절과 懷疑속에서 삶의 의미조차 상실한 허탈상태로 만들어 버렸다』고 雄辯조로 開口。

그는 「권력에 아부하는 요령주의자」「기회주의자」등 격한 어휘로 사회病理를 지적한뒤 『대기업이 권력의 눈치나 슬슬보고 권력도 대기업의 뒤나 닦아주는 시대는지났다』고 흥분。

이어 李官炯의원(民韓)은 『日本의 다나까(田中)내각도 「7천여억」 큰손」이 본다면 실로 [illegible] 5억엔의 록히드 뇌물사건으로 붕괴됐고 닉슨대통령은 남의집 사정을 엿들었다는 추문만으로 사임을 했고 인디라·간디내각은 사소한 선거법위반사건이 시비의 발단이 되어 퇴진했다』고 사례를 들어가며 책임정치의 구현을 촉구。

林采洪의원(議政)은 [illegible] 지식인으로서 그시대의 식귀를 인용하면서 『그시대의 지식인이 [illegible]』며 각료들을 향해 책임을 질줄 알아야 한다고 訓戒했다。

林의원은 이어 『이사건이 국민의 식개혁운동을 요란하게 벌이고있는 시점에 나왔다』면서 『내자신부터、당신네들부터 의식개혁을 하라고 冷笑짓고 있는 이현실을 똑똑히 알아야할것』이라고。

한편 尹國老의원(民正)은 『線은 縱線과 橫線과 曲線이 있는데 오늘의 행정은 어떠하냐』고 반문하고는 『유일하게 그을줄 아는 線은 縱線뿐인데 縱線을 잘긋는 이유가 획일화된 관료성때문』이라고 官의 硬直性을 叱責하기도。

◆「과거高度성장은 모래위의 城」

29일 국회본회의에서 劉彰順국무총리는 답변의 태반을 意識改革문제에 할애、『의식개혁운동의 중단이란 있을수 없으며 더욱시급하다』며 講論식의 답변을 전개。

張여인사건도 의식구조의 未開에 기인한다고 말한 劉총리는 『공직자가 골프한점에 1만원씩 걸고 내기한다』는 林采洪의원(議政)의 말에 대해 『그런 몰지각한 공무원은 없다고 보며 만일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一罰百戒로 다스리겠다』고 다짐。

金俊成부총리는 『금융계생활35년에 왜 그런자리에 앉아있으면서 부조리를 척결못했느냐』는 추궁에 『낯을 들수가 없다』면서 『금융계에 문제가 있는게 사실』이라고 告白。

金부총리는 景氣침체를 설명하는 중 『과거 10~20년간 경제성장을 추구、달성해 왔으나 그것은 모래위의 城』이라면서 『작년도 外債殘高 3백26억달러는 過成長의 짐』이라며 경제성장의 虛構를 지적하기도。

한편 전날 2시간넘게 보고와 답변을 했던 鄭致根법무장관은 이날은 불과 10분간의 미니답변으로 대신。

鄭장관은 또 『검찰은 張여인부부의 파렴치범죄행위를 訴追하는 입장이 아니라 辯護하는 자세를 취했다고 보지 않는가』라는 李官炯의원(民韓)의 물음에 『검찰의 명예를 걸고 수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野圈司令塔、叛亂票에 침울한 표정

野圈이 제출한 부총리와 재무·법무장관의 해임안을 차례로 표결에 붙여 부결시켰으나 예상과는 달리 野圈에서 叛亂票가 나와 야당議席은 침울。

金正禮보사·吳世應정무장관이 자격으로 표결에 참가한 부총리 解任案은 11명의 外遊의원과 臥病중인 崔昌圭(民正)·李沅衡(국민)의원이 이변론때문에 不參, 모두 2백62명이 투표에 참가。

그러나 국민당과 與政同友會에서 5명이 民正黨에 加勢, 可1백10、否1백52票로 否決되자 民韓黨지도부는 본회의장에서 즉석회합을갖고 표를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등 당황한 표정들。

이날 金輪植의원(국민)의 부총리 해임결의안에대한 제안설명이 끝나고 표결에 들어가기 직전 李起昆의사국장은 無效票를 우려、『可否표기만해야하며 다른방법은 무효』라고 두차례나 상기시키기도。

표결이 시작되기앞서 野黨 林鍾基총무는 『국회가 살고 野黨이 사는길은 해임안可決밖에 없다』며 李鍾贊民正黨총무에 총무회담을 제의、30분간회담을 가졌으나 마지막 노력도 無散。

民正黨측은 『결과는 뻔한데 林총무가 끈질긴 노력을 하고있다』며 달갑잖은표정을 지었으며 주위에서는 『黨內 문제를 의식한 林총무의 마지막 제스처』라고 評을 내리기까지。

◆吳某K某B某등 큰손 왜안잡나

29일 하오 본회의에서 民韓黨과 국민당은 野圈이 공동으로 낸 부총리등 3部장관解任案제안설명을 통해 한차례 對정부공격을 퍼부었다。

金俊成부총리관계제안설명에서 金輪植의원(국민)은 『張여인사건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없는 국민적 배임』이라며 『과연 총리이하 정부각료들은 一人之下、萬人之上의 이같은 횡포가 국민적 斷罪를 언제까지고 모면할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섭토。

이어 金炳午의원(民韓)은 재무장관관계설명에서 『애덤·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손」은 자본주의를 발전시켜주는 고마운 손이지만 우리나라의 「보이지 않는손」은 파괴적이며 정치、경제、사회 모든분야에 이르기까지 발휘하고있다』『張여인사건은 3천9백만 국민에게 충격을 가한 事件』이라고 비난했다。

鄭致根법무장관관계설명에서 (民韓)의원은 『항간에는 前정권에서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을 유치한 손으로 또 不實을 가져오게한 고위간부로 있었던 吳某씨、不實기업을 誘發케한 대표적인 惡德기업인 K모씨、張여인과 관계에 있다는 B某여인외에도 소위 큰손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수사내용이 전혀 없다는것도 우리검찰을 불신하는 사안중의 하나』라고 주장하기도。

말다툼 한번없이 오순도순

「犯罪없는마을」 龜尾市 金田2마을

울타리·門·화투·주정꾼없고

마을 防衛隊편성 야간순찰

도둑·폭행·即決하나없어

【龜尾】예부터 도둑은 물론 폭행 고사사건 한번없고 주민들 사이에 언성높이는 일이나 그 흔한 즉결처리자 한명없이 평화롭게 살아온 모범마을이 있다。

화제의 마을은 慶北道와 검찰당국으로부터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된 慶北龜尾市浦田洞 金田2마을。龜尾공단 제2단지를 벗어나 東北으로 8㎞가량 비포장도로를 따라 들어가면 뒤로는 울창한 야산이 병풍처럼 드리워져있고 앞으로는 청명한 하천이 가로질러 흐르는 조그마한 마을이 나타난다。

바로 이곳이 52가구 3백30명의 주민들이 11만여평의 농경지를 유일한 생활터전으로 오순도순 살아가는 순박하고도 인심좋은 동네 金田마을이다。

지난 한햇동안의 실적때문에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됐지만 이마을은 예로부터 주민들 사이의 사소한 다툼 한번없이 깨끗한 전통을 이어왔다는것。

이 마을 韓國 金씨의 17대손으로 2백년째 세대를 이어 살아온 터줏대감 金用石씨(67)는 자신이 어렸을때부터 동네에서 누구든간에 다투는것 한번보지못했다면서 『아마도 마을앞을 항상 맑게 흐르는 隊川이 이곳인심을 후하게 만들어주는것같다』고말했다。

20~30대의청장년들50여명으로 마을방위대를 편성, 조를 나누어 야간순찰을 돌고있으며 철저한주민신고망까지 갖춰 만일의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는것。

金田골 주민들은 『우리마을입구에 세워진 범죄없는마을 간판은 아마도 영원히 내려지지않을것』이라며 『숭고한 전통을 후손들에 물려주기위해 더욱 올바르게 살아갈것』이라고 한결같은 다짐을 보였다。【聯合】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朴婉緒 作 金光培 畵 <123>

웅답 ③

이를테면 약혼식에 해당하는 날이었다. 그런 날 오목이는 미장원에 가느라 늦게 들어와 집을 나가 자정이 넘어 들어왔으니 그동안 얼마나 속이 썩고 오목이가 미웠을까 짐작만 했다.

『그만둬요, 그만둬. 불장다 본 년 갖고 그래봤댔자 당신 입만 아프고 속만 뒤집혀요. 당신이나 나나 무슨 재간이 뛰어났다고 타고난 거지 팔자를 고쳐를 수 있답디까?』

어머니가 거침없이 악담을 퍼부었다.

『어멈아, 말을 그렇게 마하는 게 아니니라. 제 속으로 난 자식도 마음대로 못하는 세상인데 생판 남의 자식 사람 만들기가 그렇게 쉬운줄 알았던고. 남의 자식 건느리는 것도 전생의 죄 거니 속을 썩여야 하느니。우선 무슨 까닭으로 제 정사날 도망을 쳤다가 이제야 들어오나를 물어봐야할게 아니냐?』

할머니가 식구중에서 그중 먼저 노여움을 가라앉히고 부드럽고 조리있게 말했다.

『들어보나마나죠。제가 입이 열이라도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래도 그런 게 아니다。 죽을 죄를 진 사람도 할 말은 있는 법이야』

『저 버릇은 어머님이 면날 끼고 도셔서 저 모양을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어머니가 노인네 같을 하면서도 기세가 많이 누그러졌다。그렇지만 오목이는 할머니가 자기 역성을 들어주고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그녀의 편은 처음부터 없었다。그들끼리 한편이 되어그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연극을 꾸미고 있을뿐이라고 생각했다。

『듣기 싫다。 정승 판서도 제 싫으면 못하는거야』

할머니가 훨씬 노련하게 굴었다。 이제라도 잘못했다고 빌라고 딴쪽생활이 성화를 했다。 막내는 어느새 삼자속에서 누런 금빛이를 꺼내 오목이 눈앞에서 흔들어 보였다。 감수성이 마비된것처럼 이런 모든것이 오목이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오목이가 제 성질이 있다는걸 알고있는 식구들은 오목이의 이런태도를 잘못을 뉘우치고있다고 판단하고 그때를 놓치지않으려고 입을모아 빌것을 권고했다。

『빌어라。어서 잘못했다고 아버지한테 빌어。 속이 밭이 되도록 빌어도 들어주실까 말까한 어른이지만 박군을 탐내셨으니 빌면 못이기는척 들어주실게다』

하나가 돌을 치면 하나는 배를 어루만지는 식으로 그도의 얼을 빼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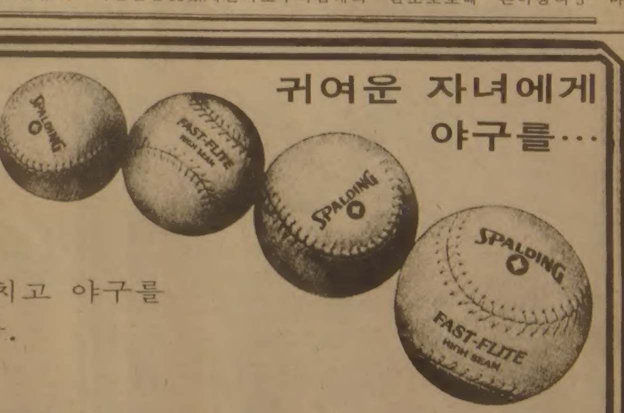
오목이는 그래서 길길이 뛰며 악담을하는 회사장부부보다 할머니의 부드럽고 인정스러운 목소리가 더 싫었다。 징그러운게 말는 것처럼 몸을 도사렸다。 오목이가 그럴수록 식구들은 할머니의 노회(老獪)한 계략을 알아차리고 재각기 장단을 맞추기 시작했다。 미순이까지 표독한 경멸을 미소로 얼버무리고 좋은보자기에 싼 걸 가져다 오목이앞으로 밀어놓으며 말했다。

『언니, 오늘 박군오빠 불쌍해서 혼났어。사주단자만 가져온다더니 반지에 귀고리、목걸이、옷감 벌거 벌거 다 넣어가지고 언니를 기다리는데 언니는 온데 간데 없으니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아무리 마음씨 좋은 박군오빠지만 오늘은 언니한테 정 떨어졌을걸。그쪽에서 마음 변했다면 이거 다 돌려줘야지 별수 있어。들어온 복 차버리고 후회해도 난 몰라』

제1회 한국일보사배

어린이(리틀) 야구 대회

귀여운 자녀에게 야구를…



북미에서 야구는 일상생활의 빼놓을 수 없는 한부분입니다. 자녀들에게 야구를 가르치고 야구를 통해서 스포츠맨쉽을 체득하게 하며 아울러 교포 자녀간의 우애와 자부심을 키웁시다.

일 시 : 1982년7월3일(토)아침9시부터
⊙우천시는 8월17일(토)로연기(같은장소임)
장 소 : 코로네이션 파크(구장2개사용함)
(CNE정문앞, 레이크쇼어×더퍼린과 베더스트 사이)
선수자격 : 1970년1월1일이후 출생자
참 가 비 : 팀당 $50
시 상 : 1, 2, 3등(에뉴얼 트로피)최우수선수상, 피쳐상, 타격상, 미기상, 감투상⊙선수 각자에게 기념품 증정
★OASA(온타리오 아마츄어소프트볼협회)규칙을 적용.

⚾ 볼크기(11인치)
⚾ 투수거리(33피트−10.1메타)
⚾ 베이스거리(50피트−15.2메타)
⚾ Bat(배트)길이(34인치이하)
직경(2과4분의1인치이하)
심판및 진행위원장 : 박재선씨
감독자회의 : 6월24일(목)오후7시 한국일보회의실
연 락 처 : 한국일보사 송광호(533−2361)
박재선(755−6434) 이건영(598−3732)

〈소프트·볼〉

유니폼 없어도 무방함.

주 최 : 토론토 한국일보

후 원 : 토론토 한인회·대한체육회 캐나다지부·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資本主義의 必然인지… 政策의 産物인지…

한국일보

특집판

取材팀

◇經濟部
朴仁淳 부장
朴炳潤 부장대우
崔相泰 차장
金曙雄 ″
金基灵 차장대우
趙源永 ″
兪曙錫 기자
朴 武 ″
朴灵銀 ″
◇寫眞部
李晶淳 기자

「獨寡占」이 財閥을 만든다

價格·出荷등 조작으로 손쉬운 致富

市場占有率로 본 財界新地圖

財閥과獨占|。재벌은 독점을 통해 생성발전하고 독점은 재벌의 생성발전을 돕는 촉매제다. 독점은 자본주의경제사회에서는 불가피한 경제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있다. 자본주의 경제는 경쟁을 통해 허약한 경쟁자를 넘어뜨리고 자본의 集積·集中을통한 대자본의 형성과 이를 토대로한 배타적인 시장지배현상으로 나타난다. 독점자본은 시장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다. 대자본은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출하조절과 판매가격의 조작및 거래제한을 통하여 독점이윤을 획득한다. 이처럼 독과점은 산업발전과정에서 기업간의 경쟁의 결과로써 이루어지는것이 보통이지만 경쟁이란 중간과정을거치지않고 처음부터 독점이 형성되는경우도 적지않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볼수있듯이 정상적인 개발과정을 거치지못한 상태에서 근대산업을 이식·건설할경우에는 자본및 시장의 양면에서 제약을 받기때문에 신규산업은 처음부터 독과점의 형태를 취하게된다. 흔히 개발도상국은 근대산업에대한시장이 협소한때문에 동일산업에 1~2개의 공장만 들어서도 금방 포화상태에서 이르게되며 그결과 새로 등장하는 산업은 거개가 독과점의 형상을 갖춘다. 더우기 급속한 경제성장이나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특정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육성하는경우 독과점은 정부의 비호아래 성장하게된다.

◇주요산업을 독과점해버린 재벌은 빌딩을 지어「富의城」을 마련하느라 매우 분주하다。林立하는 빌딩의 위용은 재벌의 스테이터스·심벌화하고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정부주도아래 속성근대화를 서두른만큼 인위적인 독점의 소지가 많았다. 정부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관점에서 다수공장의 소규모 분산보다는 시설의 대규모화를 추구함으로써 정책적인면에서 독과점의 형성을 촉진해왔다. 차관·기술등 외자도입은 정부의 엄격한 스크린을 받게되었고 이밖에 조세 금융상의 지원·수입통제·수출산업에대한 행정지원등이 부지불식간에 독과점의 형성을 촉진했다. 그결과 정유·板유리·시멘트·폴리에스터·나일론系등 원자재산업은 말할것도없고 코피·콜라·맥주등 소비재까지도 특정업체에 독과점되는 기현상이 빚어졌다.

(8면品目別市場占有率表참조)

그러나 기업이 일단 독점적 지위에 올라서고 보면 돈을 버는 것은 땅짚고 헤엄치기나 다름없다. 말하자면 독점은 致富의 지름코스。우리나라의 재벌이 6·25로 회진된 폐허 위에서 불과 30년 남짓하는 사이에 오늘과같은 엄청난 蓄財를 할수있었던것은 독점이 아니고서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하긴 재벌의 치부 과정에서는 귀속재산의 불하, 援助弗 나눠먹기, 외자도입및 금융특혜등 각종 政商的 이권행위가 개재된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재벌의 생성과정에서 결정적인 기여를 한것은 역시 독과점이다. 독점을 통해 벼락 치부가 가능했고 독점의 광맥을 잡음으로써 단숨에 재벌의 스타덤에 올라설 수 있었다。그런 의미에서 한국재벌의 생성발전과정은 곧 독과점의 전개과정으로 설명된다.

三星재벌은 製糖공장을 제일먼저세워 설탕을 독점하면서 재벌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어 제일모직을 세워 모직을 독점하여 확고부동한 정상의 자리를 굳혔다. 럭키는 크림원료를독점하여 찬스를 잡았고 다시 치약을 독점하여 재벌창업과정을 이수했다. 한국화약은 화약독점에서 얻은 이윤을 토대로 오늘의 재벌그룹을 형성했다. 開豊재벌과 동양시멘트는 시멘트를 독점해서 축재를했다.

60년대에 접어들어 미개척의처녀지가 개척되면서 독점의 기회는 더욱많아졌다. 나일론 부문에서는 코오롱과 曉星재벌을 낳았다. 아크릴섬유에서는 韓一合纖과 泰光産業그룹이 탄생했다. 갖은 무리를 해가며 자동차를 독점한 新進자동차그룹이 2~3년사이에 1급재벌로 부상한가하면 하찮은 라면을 독점한 三養食品, 조미료의 味元, 한국유리(판유리) 鮮京(폴리에스터) 永進(鉛·亞鉛) 대한석유공사(정유) 등이 모두 짧은독점기간동안에 엄청난 치부를했다.

비단 제조업분만이 아니라 유통도 용역도 독점만하면 노다지를 잡는다. 油公이 정제한 석유류제품의 국내유통을 독점했던 興國商社가 순식간에 재벌로 성장하여 湖南精油의 건설에 참여했다.

美8군군송용역을 독점했던 韓進은 다시 越南특수경기에 편승해서 1급재벌로 발돋움했다. 오늘의 錦湖그룹은 湖南지방의 버스노선독점에서 기반을 굳혔다.

독점이 아니라도 좋다. 당해업종을 리드할수있는 지위에 있거나 담합만 가능하면 複占도 寡占도 모두 짭짤한 재미를 볼수있다.

오늘의 斗山그룹과 조선맥주는 맥주장사로 세워진 재벌이다. 50년대의 면방업을 리드하던 三護·金星·泰昌(阪本)·全紡·大韓·제분업의 大韓·朝興·제과의 韓國生絲등도 당시에는 모두 손색없던 재벌이었다. 세칭 自由黨 5인조로 불리던 H건설·K건설·D산업·J産業·D工業등은 50년대의 모든 토목공사를 독과점하여 건설업에서 용명을 날렸다.

이밖에도 전자부문에서는 金星社·三星電子·大韓電線이、전선부문에서는 大韓電線·金星電線、그리고 시멘트산업에서는 雙龍과 東洋시멘트가 독점적지위를 누리고있고 전화교환기(金星通信·東洋精密·韓國電子通信) 철근(東國製鋼·仁川製鐵) 鋼管(한국제강·부산파이프·일신제강) 薄板(연합철강·日新제강) PC코드(邦林) 나일론(코오롱·東洋나이론·고려합섬) 슬레이트(韓國슬레이트)·폴리에스터(三養社·鮮京·第一合纖·코오롱·東洋) 아크릴(韓一·泰光) 설탕(第一제당·삼양사) 精油(油公·湖油·京仁·雙龍) 자동차(현대·새한·起亞) 오토바이(大林·효성) (롯데·해태) 아이스크림(대일유업·해태·롯데) 대두유(동방유량·제일제당) 코피(동서식품·미주산업) 신문용지(전주제지·세대제지) 청량음료(롯데·해태·한양식품) 등이 모두 독과점 상태에서 재벌성장에 필요한 자양분을 공급하고 있다.

독과점은 내수산업분아니라 수출·수입분야에서도 형성된다. 大農과 元豊산업은 양곡수입으로 돈벌고 나서 그길로 재벌그룹에 끼어들었다. 70년대가 낳은 신흥재벌 大宇그룹은 수출부문에서 섬유쿼터 독점을 통해 수직성장의 길을 닦았다.

이처럼 재벌의 엄호와 업계의 자기방어아래 우리나라의 주요산업은 대부분 독과점상태에 놓여있다. 경제기획원은 지난 78년 물가안정및 公正去來法(당시의 독과점 규제법) 에의거、1백48개품목에 달하는 독과점품목을 지정한바있는데 주요산업이 모두 독과점상태에있었고 독과점의 현황은 곧 한국재벌의 랭킹과 일치했다. (다만 특별법에 의해 규제되고있는 전력 석유류 농약 교과서 酒精 운수 의료수가등 63개 官認許料金은 제외)

경제기획원발표에의하면 (78년) 가장많은 독과점품목을 제조·판매하는 재벌은 럭키그룹. 합성세제·치약·화장비누·파당·샴푸 (럭키)、롱선케이블·전력케이블 (金星電線)、전화기(금성통신)、카본블랙 (콘티넨탈카본)、세탁기·냉장고·TV·선풍기·전기미서·금전등록기·엘리베이터(金星社) 전기동 (제련) 등 무려 17개 品目에 달했다.

三星그룹은 소모직물·모혼방직물(제일모직) 혼방섬서데님 (제일합섬) TV·냉장고·금전등록기(삼성전자) 신문용지·중질지 (全州제지) 설탕·조미료 (제당)등 10개品目을 독과점、랭킹2위를 마크했다.

당시 호경기의 첨단을 달리던 건설업계의 강자 현대그룹은 승용차·버스·트럭(자동차)철근·형강(仁川제철) 슬레이트 (金剛) 선박 (중공업) 을지배하고있고 大宇그룹은 디젤엔진·포크리프트(중공업)버스·트럭(새한)을 대한전선그룹은 통신케이블·전력케이블·절연전선·냉장고·TV·세탁기·금전등록기의생산을 독과점하고있다.

三星이나 럭키말고도 많은 재벌이 많은 제품을 독과점하고있다。韓一合

▲三養社(설탕, 폴리에스터SF)▲起亞산업(버스, 승용차, 트럭, 자전거) ▲三美社(美松제재목, 스테인리스강판 특수강) ▲해태 (우유, 아이스크림, 주스, 유산균음료) ▲雙龍 (사멘트, 크라프트지) ▲錦湖 (타이어, 합섬고무) ▲太平洋화학 (콜드크림, 수렴화장수, 샴푸, 영양화장품) ▲進洋化學(PVC, 폴리우레탄) ▲國際商事(바판, 아연도강판, 운동화) ▲日新제강(바관, 강관, 주석도강판, 아연도강판) ▲東國製鋼(철근, 강선재, 용접봉) ▲韓國生糸 (생사, 운동화) ▲벽산(슬레이트, 농기구) ▲東亞제약(약품, 청량음료) ▲유한양행 (약품, 화장지) ▲東邦油糧 (대두박, 대두유) ▲大農, 忠紡, 大韓紡績, 全紡(면사) ▲大林産業 (요업) ▲한국유리(유리) ▲元豊産業 (옥수수전분) ▲東洋化學(소다회) ▲眞露(소주, 위스키)▲白花(청주, 위스키)▲三養食品 (라면) ▲豊山金屬 (동판, 동봉) ▲泰光産業(아크릴릭사및 방적사, 모포) ▲大同工業 (경운기)…이름있는 재벌은 틀림없이 독과점과 관련되어있다.

독과점의 판도=재벌의 판도는 오늘도 큰변화없이 그대로 유지되고있다. 다만 독과점규제법 (공정거래법)이 바뀌짐에따라 규제대상과 내용이 달라졌고 독과점품목도 크게 축소되었다.

경제기획원이 81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①내수매출액 (국내생산+수입-수출) 3백억원이상인 품목으로 ②1사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 또는 3개사셰어가 70%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한 독과점현황(市場支配者的사업자및 대상품목) 에 따르면 독과점품목은 48개品目, 1백15개업체。조제분유·아이스크림·유산균발효유·대두유·대두박·라면·설탕·껌·조미료·코피·맥주등 식료품을 비롯해서 신문용지·크라프트지·아크릴방적사·나일론사·폴리에스터F糸·각종석유화학제품·합성세제·드럼크류·각종철강재·판유리·유리병·합금철·식관 (통조림) ·TV·냉장고·전화기·케이블·경운기·자동차·모터사이클등이 망라되었고 이들 제품은 모두 재벌의 계열기업에서 생산공급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현행제도에 의한 독과점품목은 독과점의 실태를 정확하게 나타내지못한다. 현행제도는 행정규제의 편의에 따라 매출액이 많은것만 골랐기때문에 중간원료가 많이 포함되어있고 따라서 소비자와 직접관련이 있는 치약 기성복 면사 시멘트 볼펜 신발류등이 빠져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 품목은 모두 재벌계열기업에대한 독과점상태에 있다。재벌은 독과점을통해 치부를했다.

우리는 재벌기업이 생산공급하는 물자로 살아간다. 독과점은、아니 재벌은국민 경제를 지배하고있다. 독과점을 지배하면 재벌이 되고 독과점에서 탈락하면군소기업으로영락한다.

이제 독과점은 재벌의 재력을 측정하는 하나의 척도가 되어버렸다. 실로 기막힌 장사속이다. 독과점은 국민생활에는 별다른 이득이 없지만 장사속으로는 천하없는 安全瓣이다. 그래서 이사회는『가난하기때문에 재벌이 양산된다』는 역설이 지배하고있다.

【朴炳潤기자】

借款·技術도입도 特惠 누려 流通·用役까지 한때「노다지」

″社會가 가난해서 財閥量産된다″逆說도

이기면 財閥·지면 倒産의 市場쟁탈전

70년浮沈史를 본다

자본주의는 시장경제와 자유경쟁의 토대위에 세워진 경제체제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기업은 최대이윤을 목적으로 하다. 자본주의 생산시스팀은『대량생산에의한 비용절약의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이 세가지 명제에서 다음과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기업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시장을 지배하려한다. 시장점유율이 높아질수록 생산은 늘어나고 생산이 늘어나면 생산단가는 떨어진다。마침내 독점단계에 이르면 독점이윤이 덤으로 굴러들어온다. 그때문에자본주의사회에서는 경쟁자가 출현하면 필사의 시장쟁탈전이벌어진다.

우리나라에 근대적공장이 들어선것은 京城織紐(1911년) 가 그효시를 이룬다. 경성직유는 댕기 영남끈 허리띠 주머니끈 대님등을 만들어 가내수공업형태의 동업자들을 구축했다。

이어 최초의 근대산업인 京城紡織이 민족자본에 의해 설립되었다(1919년)。경성방직은 국내광목시장을놓고 한발먼저 설립된 일본 미쓰이(三井) 재벌계의 朝鮮紡織과 수입품을 상대로 치열한 시장쟁탈전을 벌였다。이때 경성방직은 太極星표라는광목을 내놓고 한민족의 애국심을 고취하기도했다.

30년대들어 고무신 시장에서는 大陸고무·京城고무·大一고무등이 각축을 벌였다。또 백화점가에서는 朴興植이 세운 和信백화점과 崔楠의 東亞百貨店이 각축을 벌인끝에 和信이 東亞를 흡수합병했다。和信은 그후 日人상가(南村) 의 丁子屋(현 美都波) 三越백화점 (현 新世界) 과 각축을벌였다。

그러나 일제하에서는 국내산업이일어서지못했고 그위에 국민의 소득수준이 낮아 수요가 미미하였기 때문에 이렇다할 시장쟁탈전이 없었다。더구나 1930년대 말에 접어들어 통제경제체제가 강화되면서 부터는 도무지 시장쟁탈전이라는 것이 벌어질소지가 없었다。물자결핍시대에는 물건을 많이팔기위한 판매전이 필요없었기 때문이다.

日帝땐物資결핍으로 소강…6·25후엔 酒類시장 불꽃
60年代 調味料 미원과 味豊등 대결…「大三星」에 쓴맛
油公독식 정유시장에 湖油도전…기름남자 더욱 熱戰

물자결핍현상은 해방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게다가 대량생산체제를 갖춘 기업이 없었기때문에 시장은 한상 셀러즈마킷이었다.

6·25와 더불어 세태는 다시한번 바뀌었다. 전쟁은 여자의웃음과 술값을 싸게만든다. 폐허는 여자의웃음과 술값을 헤프게 만든다。술은 휴전전후의 폐허와 허탈을 달래주는 영약으로 날개돋친듯 팔려나갔다。이런 여건속에서 주류산업이 발달하고 술시장쟁탈전이 벌어졌다.

먼저 맥주시장。日人이세운 삿뽀로맥주를 이어받은 조선맥주 (크라운)와 기린맥주를 승계한 동양맥주 (OB) 가 맞붙었다。초창기에는 6·25때 피해가 컸던 동양맥주가 열세에있었으나 차차 전세는 역전되어갔다。크라운의 무리한 확장정책에 OB는 착실하게 지반을 다져나갔다.

마침내 크라운은 법정관리를 거쳐(56년) 61년에는 한일은행관리로 넘어갔다。그후에도 양사는 몇차례 관매전을 겪었지만 50년대이래 OB와 크라운의 마킷셰어는 60對40을 지속하고있다。70년대 들어서는 韓獨맥주의 이젠베어 OB와 크라운에 도전장을 보냈으나 경전1년이 채못되어 쓰러지고말았다.

淸酒업계에서는 朝花·朝海등이 이름을 날리다 60년대들어서는 白花와 三鶴이 대립전을 벌였다. 또 소주시장에서는 三鶴과 眞露가 격돌했다. 그러나 三鶴이 뜻하지않던 탈세사건에 연루되어 쓰러지자 청주의 白花、소주의 眞露시대가 열렸다.

전쟁이 끝나고 복구경기에 편승해서 많은 기업이 설립되었다. 53년초 재일제당과 삼양사가 설탕공장전설계획을 서둘렀으나 정부는 제일제당만 허가했다。제일제당이 외제를 구축하고 순식간에 큰돈벌었다는 소문이 나돌자 돈있는 기업인들이 벌떼처럼 덤벼들었다. 東洋제당(54년) 韓國제당(54년) 中央제당(55년) 三養社(55년) 해태제과製糖(56년) 大東製糖(56년) 이 차례로 설립되어 혈투를 벌인끝에 60년대들어서는 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三퍼立勢를 굳혔다.

모직물시장에서는 제일모직의 골덴텍스·대한모직의 카멜텍스·경남모직의 K앙고라텍스가 각축을 벌인가운데 골덴텍스의 우위체제로 굳어졌다.

타이어부문은 한국타이어·흥아타이어·동신화학이 각축을 벌이다 후발업체인 三陽타이어의 등장으로 판도가 바뀌어 지금은 三陽과 韓國타이어가 시장을 주도하고있다.

시장쟁탈전의 클라이맥스는 치약과 조미료가 장식했다。오늘의 럭키재벌은 치약으로 뿌리를 내렸다。럭키의치약아성에 불소치약이 도전했다。『불소치약, 충치하면 불소…』라고 외쳐대며 세상이 떠들썩하게 싸움을 벌였으나 재력과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지 못하고 쓰러지고말았다.

60년대들어 조미료업계도 불꽃을뿜기는 혈전을 벌였다. 4분5열되어있던 조미료업계는 선두주자 味元을상대로 味豊·닭표맛나니등 나머지4개업체가 연합전선을펴고 대항해왔으나 아직껏 7對3의 열세를 만회하지 못하고있다. 조미료싸움의 패배는 매사에 제1주의를 지향하는 大三星에 치욕의 한을 안겨 주었다.

라면업계의 싸움도 볼만했다. 분식장려시책에 실려 대용식으로 등장한 라면시장을놓고 三養라면과 롯데라면(농심)이 각축을 벌였으나 개전이래 지금까지 삼양라면 우위가 지속되고있다.

청량음료업계는 이북서 월남한 7인의 동지가세운 칠성사이다의아성에 코카콜라가 뛰어들었다. 칠성은 코카콜라의 일격에 무너지고 끝내는 롯데에 넘어갔다。지금은 코카콜라·펩시콜라·칠성사이다가 각축을 벌이고있다.

정유업계의 시장쟁탈전도 빼놓을수없는 격전지대|。油公의 독점아성에 湖油가 파고들면서 불붙기 시작한 시장쟁탈전은 최근 기름이 남아 돌면서 더욱 가열되고있다. 또 자동차업계는 처음 신진의 코로나와 현대의 코티나가 격돌했으나 70년대 들어서는 현대、새한、기아산업이 불을 뿜는 열전끝에 중화학투자조정이라는 액운을 감수해야 했다.

또 해태의 메도골드와 대일유업의 포머스트의 대결로 시작된 아이스크림업계는 대일유업、해태제과、롯데제과의 각축장으로 바뀌었고 유산균발효유시장을 무대로한 한국야쿠르트、해태유업、남양유업의 각축전도 볼만한 구경거리。이밖에 가전제품은 金星社、三星電子、大韓電線이、오토바이는 起亞기연(대림)과 효성기계、과자류는 해태、롯데、오리온、비누는 럭키、동산유지、애경유지가、그리고 백화점가에서는 미도파、신세계、롯데가 서로 많은 마킷셰어를 얻기위해 열전을 벌이고있다.

그러나 최근 시장쟁탈전은 무한전쟁에서 유한전쟁으로 양상이 바뀌어가고있다。지나친 경쟁은 과도한 출혈과 집단도산을 강요하기때문에 경쟁자들은 담합을 통해 과점상태에서 시장을 지배하려한다.

근래엔「有限싸움」…談合많아

축

일간발행 1주년

교민의 벗 · 길잡이
생동하는 뉴스 · 계몽기사

한인사회 대동맥
앞서가는 토론토 · 한국일보

경기고교 동창회회장
윤호영 및 회원일동

축

일간지발행 1주년기념

●교포 사회의 등불 !
●앞서가는 토론토 · 한국일보 !
●더욱 발전 있기를….

오샤와 세종한글학교 교장 구 연 원

주요 品目·업체별 국내市場 占有率

(81년말현재·경제기획원조사·單位 : 百萬원·%)

품목 및 업체	국내매출	시장점유율
▲조제분유	38,002	
남양유업	25,670	67·54
매일유업	10,009	26·34
서울우유협동조합	2,297	6·04
기타	26	0·08
▲아이스크림	85,569	
대일유업	27,790	32·48
해태제과	25,481	29·78
롯데제과	24,560	28·70
기타	7,738	9·04
▲유산균발효유	64,735	
한국야쿠르트	36,608	56·55
해태유업	10,123	15·64
남양유업	6,519	10·07
기타	11,485	17·74
▲대두유	57,308	
동방유량	38,108	66·50
제일제당	16,819	29·35
기타	2,381	4·15
▲대두박	52,118	
동방유량	38,484	73·84
제일제당	12,789	24·54
기타	845	1·62
▲라면	111,703	
삼양식품	69,911	62·59
농심	41,792	37·41
▲설탕	186,055	
제일제당	91,110	48·96
삼양사	63,407	34·08
대한제당	31,538	16·95
▲껌	45,683	
롯데제과	27,338	59·84
해태제과	14,964	32·76
동양제과	2,700	5·91
기타	681	1·49
▲화학조미료	79,663	
서울미원	53,763	67·49
제일제당	25,896	32·51
기타	4	0·00
▲코피	31,314	
동서식품	27,567	88·03
미주산업	2,835	9·05
기타	912	2·92
▲맥주	135,281	
동양맥주	80,329	59·38
조선맥주	54,859	40·55
기타	98	0·07
▲아크릴릭방적사	52,691	
한일합섬	35,761	67·87
태광산업	14,044	26·65
기타	2,886	5·48
▲신문용지	53,086	
전주제지	24,256	45·69
세대제지	18,025	33·95
대한제지	5,009	9·44
기타	5,796	10·92
▲크라프트지	69,342	
쌍용제지	29,454	42·48
대원제지	23,347	33·67
조일제지	5,963	8·60
기타	10,578	15·25
▲스티렌모노머	32,971	
울산석유화학	28,529	86·53
기타	4,442	13·47
▲저밀도 폴리에틸렌	94,376	
한양화학	81,622	86·49
기타	12,754	13·51
▲폴리프로필렌	58,441	
대한유화공업	29,633	50·70
호남석유	25,637	43·87
기타	3,171	5·43
▲폴리스티렌	33,171	
한남화학	24,093	72·63
신아화학	5,465	16·48
기타	3,613	10·89
▲염화폴리비닐	63,896	
한국프라스틱공업	35,964	56·29
(주)럭키	27,400	42·88
기타	532	0·83
▲나일론F사	44,772	
동양나이론	19,256	43·01
(주)코오롱	14,672	32·77
고려합섬	7,491	16·73
기타	3,353	7·49
▲폴리에스터F사	34,485	
선경합섬	11,969	34·71
(주)코오롱	10,766	31·22
동양폴리에스터	6,068	17·60
기타	5,682	16·47
▲드링크류	37,148	
동아제약	24,012	64·64
일양약품	7,421	19·98
동화약품	2,456	6·61
기타	3,259	8·77
▲합성세제	34,091	
(주)럭키	19,745	57·92
애경유지	10,006	29·35
기타	4,340	12·73
▲자동차타이어	92,286	
삼양타이어	43,447	47·08
한국타이어	37,316	40·44
동신화학공업	6,362	6·89
기타	5,161	5·59
▲판유리	59,741	
한국유리공업	53,903	90·23
기타	5,838	9·77
▲유리병	66,751	
두산유리공업	35,033	52·48
삼광 〃	7,252	10·86
효성 〃	6,991	10·47
기타	17,475	26·119
▲합금철	52,211	
삼척산업	18,376	35·20
한국합금철	11,314	21·67
동일화공	8,353	16·00
기타	14,168	27·13
▲빌리트(보통강)	44,336	
포항종합제철	25,519	57·56
기타	18,817	42·44
▲중후판(보통강)	85,418	
포항종합제철	67,395	78·90
동국제강	6,893	8·07
한국철강	4,874	5·71
기타	6,256	7·32
▲냉연박판	96,048	
연합철강	40,911	42·59
포항종합제철	24,993	26·02
일신제강	20,898	21·76
기타	9,246	9·63
▲스테인리스강판	55,960	
한국종합특강	39,680	70·91
기타	16,280	29·09
▲핫코일	122,477	
포항종합제철	122,447	99·98
기타	30	0·02
▲주석도강판	35,863	
동양석판	19,377	54·03
일신제강	13,860	38·65
신화실업	2,085	5·81
기타	541	1·51
▲아연도강판	31,386	
연합철강공업	16,669	53·11
일신제강(주)	5,849	18·64
포항종합제철	4,385	13·97
기타	4,483	14·28
▲동괴	74,931	
한국광업제련	44,117	58·88
온산동제련	24,647	32·89
건설실업	4,719	6·30
기타	1,448	1·93
▲알루미늄괴	89,773	
대한알루미늄	60,561	67·46
기타	29,212	32·54
▲통조림(식관)	33,011	
한일제관	18,069	54·74
삼화제관	5,393	16·34
기타	9,549	28·92
▲경운기	67,288	
대동공업	42,571	63·27
국제종합기계	17,233	25·60
아세아종합기계	4,570	6·79
기타	2,924	4·34
▲TV수상기 (천연색TV포함)	87,456	
금성사	36,181	41·37
삼성전자공업	29,610	33·86
대한전선	13,659	15·62
기타	8,006	9·15
▲자동전화교환기	80,879	
금성통신	46,370	57·33
한국전자통신	16,564	20·48
동양정밀	14,542	17·98
기타	3,403	4·21
▲가정용냉장고	69,080	
금성사	26,427	38·26
삼성전자공업	18·296	26·49
대한전자	17,079	24·72
기타	7,276	10·58
▲통신케이블	119,888	
대한전선	50,973	42·52
금성전선	43,162	36·00
국제전선	9,984	8·83
기타	15,769	13·15
▲전력케이블	56,803	
대한전선	26,181	46·09
금성전선	14,867	26·17
국제전선	3,275	5·77
기타	12,480	21·97
▲승용차	138,402	
현대자동차	73,607	53·18
새한자동차	33,901	24·50
기아산업	18,057	13·05
기타	12,837	9·27
▲일반버스 (고속버스포함)	122,276	
새한자동차	62,560	51·16
현대자동차	44,127	36·09
아세아자동차	10,844	8·87
기타	4,745	3·88
▲일반화물자동차 (특수용제외)	203,641	
기아산업	85,515	41·99
현대자동차	68,491	33·63
새한자동차	49,371	24·25
기타	264	0·13
▲자동차디젤엔진	94,497	
대우중공업	64,797	68·57
기타	29,700	31·43
▲모터사이클	45,230	
기아기계공업	33,682	74·47
효성기계공업	9,126	20·18
기타	2,422	5·35
▲혼방소모직물	70,957	
제일모직	21,994	31·00
경남모직	12,291	17·32
원풍산업	11,191	15·77
기타	25,480	35·91
▲비스키트	210,501	
롯데제과	48,908	23·23
동양제과	45,625	21·67
해태제과	43,849	20·83
기타	72,119	34·27
▲사이다·콜라	143,146	
롯데칠성음료	38,357	26·79
한양식품	30,896	21·57
우성식품	21,269	14·86
기타	52,638	36·73
▲선풍기	24,993	
신일산업	9,704	38·83
금성사	7,685	30·75
대한전선	3,378	13·56
기타	4,226	16·90

※기타항목은 독과점업체에서 제외된 中小業體들의 국내시장점유율을 合算한것임.

現代·새한「포니Ⅱ」와「맵시」로 맞붙어

自動車업계、燃料節約型 소형차개발 서둘러

大型버스는 4社角逐

12人乘 봉고코치 起亞서 독점생산

경운기國産化率 百% 4社서 年 12만대 공급

모터 사이클 3社、국내市場보다 輸出에 力點

8 톤이상 트럭은 現代·새한·亞細亞

◇출고를 기다리고있는 국산승용차들.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중공업분야는 국내시장이 독과점돼야 발전할수있다지만 독과점 재벌기업들은 가격、품질면에서 폭리를 취하거나 횡포를 부리는예가 허다하다.

승용차

지난해 2·28자동차산업합리화 조정으로 승용차 생산은 現代自動車와 새한自動車로 2元化됐고 起亞産業은 신규생산이 중지된채 재고품만 처분하고 있다.

작년 판매실적을보면 現代가 포니4만5천3백89대등 5만2천8백4대、새한이 레코드 8천3백대등 8천9백38대、起亞가 피아트1천1백49대등 4천8백85대를 팔았다. 시장점유율로보면 포니가 전체의 68·1%를 차지하는등 現代가 79·2%、새한이 13·5%、起亞가 7·4%를 차지했다.

그러나 올들어서는 現代가 포니Ⅱ、새한이 맵시를 새로 개발、시판에 나서면서 양사의 판매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現代는 포니Ⅱ외에도 코티나를 개량한 마크Ⅴ·그라나다를、새한은 맵시와 레코드살롱등으로 경쟁하고있는데 최근엔 연료비가 적게드는 LPG차종개발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특히 現代는 선진국형인前輪驅動에 연료비가 적게드는 소형차개발과 함께 국제경쟁력을 갖추기위해 日本三菱과 합작으로 연산30만대규모의 승용차 생산공장건설에 착수했고 새한도 GM의 월드카전략 도입을 추진중이다.

일반 버스

버스는 현재 現代 새한 亞細亞 東亞자동차와 起亞産業등 5개회사서 생산하고있다. 이중 봉고코치나 미니버스등 15인승이하는 起亞그룹이 독점생산하고 있다.

작년까지만해도 버스판매 시장점유율은 現代가47·1%、새한이 26·7%、아세아 14·1%、起亞7·6%、東亞 4·4%였으나 2·28부조정으로現代、새한등이 대형버스만 생산케됐다.

現代는 47인승 시내버스 25인승 마이크로버스와 관광버스용인 47인승 준고속버스를、새한은 47인승 시내버스와 47인승 관광버스、東亞는 47인승시내버스와 고속버스、아세아는 시내버스 관광버스 고속버스 32인승통근버스 25인승 마이크로버스이외에 15인승 미니버스를 독점생산하며、起亞는 12인승 봉고코치를 독점생산하고 있다。이가운데 기아의 봉고코치는 사람과 짐을 함께 싣는데다 유지비가 적게들어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레저용으로 인기를 끌고있다.

화물차

트럭역시 지난해 2·28부조정으로 1톤이상 5톤까지는 起亞産業에서만 독점생산케됐다. 이에따라 現代 새한 亞細亞자동차는 8톤이상의 트럭만을 생산하고 있다.

작년말까지 트럭시장점유율은 각회사들의 재고품처분등으로 起亞가 60·9%、現代자동차가21·9%、새한자동차 16·8%、아세아자동차0·6%등이었다.

소형트럭을 독립생산케된 起亞는 올해 5만대를 팔예정이지만 아직도경기침체를벗어나지못해전망은 불투명한 편이다。起亞는 승용차의 변형인 픽업생산은 중단되었지만 1톤봉고 2·5톤 타이탄 4·5톤복서를 독점생산하고、새한은 0·85톤픽업 8톤카고및 덤프트럭 11톤카고및 덤프트럭、現代는 0·6톤피업과 8·5톤카고및 덤프트럭 11톤카고및 덤프트럭、아세아는 8·5톤덤프트럭및 9톤카고트럭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모터사이클

大林自動車(대표李載鉉) 曉星機械工業(〃趙旭來) 磨新精業(〃尹植燮)등 3개회사서 생산하고 있다。2·28부조정으로 大林工業이 지난4월초 起亞技研을 흡수합병하여 大林自動車로 새로 발족、모터사이클업계의 선두주자가 됐다。

지난해 판매실적은 起亞技研이 6만1백26대、曉星이 4만5천9백78대、大林이 1만7천7백8대、磨新이 5백60대였는데 大林이 起亞와 합병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은 大林이 62·6%、曉星이 37·0%、磨新이 0·45%를 차지하게됐다。大林은 日本혼다와 기술제휴로 50 85 90 1백25cc짜리를、曉星은 日本스즈끼와 제휴로 80 1백25cc짜리、磨新은 伊太利피아지오와 1백25cc스쿠터를 생산하고있다。그러나 모터사이클은 아직도 국내시장이 협소해서 수출에도 힘을 쏟고있는데 지난해는 大林의 1천2백17대등 부품을포함 총 2천9백51대를 수출했으며 올해 2만대이상 수출이 가능할것으로 보인다。

올들어曉星은 美國、호주등으로부터 오토바이 1만2천3백34대의 수출계약과함께 7천80대의 신용장을 받아놓았고 大林은 말레이지아로부터 올해 2천6백40대 83년 3천3백대 84년 4천대의 수출계약과 美國으로부터 모페드 5천대분계약 6백대의 신용장을 받아놓고있는 형편이다。

경운기

농기계보급의 주종을 이루는 경운기의 국산화율은 1백%。

大同공업、國際綜合機械、東洋物産、亞細亞綜合機械등 4대생산업체가 연간12만대를생산、전체 공급량의 80·5%를 점유하고있다。

81년도 각社別 공급실적은 大同이 5만2천6백대를 공급、전체공급량의 65%、5백85억원의 매출실적을 보여 단연타사를 리드하고있다。大同의 생산능력은6만대。

國際는 지난해 3만대생산능력에 2만2천1백대(2백28억원)를공급、전체공급량의 19%를점유。東洋은 1만5천대 능력에 4천4백대(52억)를 공급、3·1%의 점유율이었고 亞細亞는 1만5천대능력에 6천대(1백억)를 공급、5·8%의 점유율이었다。

전화기

81년말현재 전화기대수는 약4백만대이며 전화회선 보급률은 1백명당 8·9대이다. 체신부가 작년부터 전화기선택을 가입자가 임의로 선택할수있도록 허용함에따라 金星通信 東洋精密 泰興精密 國際通信 東洋精密등 전화기메이커들이 다양한 색상과 모델을 개발하고있다。

金星통신은 페트론 두림포등 가정용과 키폰 토페즈 멀피스타등사무실용、기능면에서 MFC방식등을 개발 판매、전체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있다。동양정밀은 그동안 해외수출만하던 장식용 전화기등 12개의 다양한 기종을 국내시판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리점 전화기·全電子式전화기등 새제품을개발、30%가까운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財閥그룹 總帥들의 面貌

집안 사람 안쓰는 孝子회장

코오롱 李東燦씨

나일론붐을 타고 성장한 섬유재벌。6·25特需로 일본에서 큰돈을번 선친 李源万씨와 함께 富의 城을 쌓아올렸다。慶北迎日郡출신으로 어릴때는 등록금을 못내 國校를 중퇴했고 6·25이후에는 공비토벌特警隊등 경찰생활도 했다。그룹경영에집안사람을거의쓰지않으며 社訓은 사원복지증진을 표방。60이 넘은 지금도 8순노모에 매일아침 신문을읽어드리는 것으로 유명하며 경영자협회총회장으로도 활약。

3세 재벌…安全경영 치중

斗山그룹 朴容昆씨

포목상을했던 조부朴承稷씨。OB맥주를 발판으로 재벌의지위를 굳힌 선친朴斗秉씨에 이은 우리나라 유일의 3세재벌。美워싱턴大商大를나와산업은행에서 3년간 행원생활도했다。이미51세의 중년기업인으로 맥주、음료품이 주력인 13개계열기업을 거느리고있지만 선친의 위광이 너무강해 아직 동년배재벌총수에 비해 세상에 덜알려진편。인화를 강조하고 안전경영에 치중。테니스와 낚시를 즐긴다。

神話남긴수출; 商才탁월

대우실업 金宇中씨

약관31세에 자본금5백만원의 大宇實業을 창업、불과15년남짓만에 국내정상재벌로 급성장한 神話속의「한국수출王」。상황판단이 빠르고 사우디에 석유난로라도 팔수있는 탁월한 商才로 유명하고 섬유수출에서 최근에는 중화학분야에도 발을뻗쳐 그가지휘하는 大宇그룹은문어발식으로급격히뻗어났다。京畿高、延大출신으로그의경영스태프중엔京畿출신이많다。골프도안치고가끔여가엔마작이나포커를즐긴다。

뚝심 배짱의 重工業 頂上

현대그룹 鄭周永씨

해외건설로 노다지를 잡고 조선자동차 엔진등 중공업의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는 올해 67세의 한국자산규모의 최대의 재벌총수。배짱이 두둑하고 저돌적인 사업추진으로 모두가 불가능하다는 일도 밀어붙여 해낸다。江原道 通川의 가난한 농가 맏아들로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16세때 집을 나와 철도공사판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財界의 총리격인 全經聯 회장직을 3대째 맡고 있다。

人材·經營서 제1주의목표

三星그룹 李秉喆씨

富와 재벌의 상징적 존재로 한국인의 입에 오르내리는 頂上재벌。연간 매출4조원의 20개 계열기업群과 8만여의 종업원을 거느리는 그는인재제일주의와 모든 산업영역에서 또한 품질제일을 고수하려는 경영제일주의를 표방한다。근년 위암수술과 뇌종양수술을받는등 노령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서서히 2세체승을 서두르고있다。미술품수집과 감정에 조예가 깊고 골프를 즐긴다。올해로 72세。

小數點 따지는 工大 출신

롯데그룹 辛格浩씨

추잉껌으로 일본에서 대성、기반잡은 재일동포재벌。22년 慶南 蔚州에서 출생、蔚山농업학교를 거쳐 21세때 渡日、고학으로 日와세다大理工學部까지 졸업했다。17년전부터 모국투자에나서 국내에 제과 호텔 기계 오디오 주조 축산 건설 석유화학등 20여개기업을 거느리고있다。원가계산에 소수점까지 따지는 치밀형。그룹社訓은 청결 인화 절검。바둑 골프가 취미다。

제과로 부상한 자수성가型

해태제과 朴健培씨

해태그룹을 실질적으로 끌어왔던故朴炳圭씨의 장남。閔厚植씨、故申德均씨、故朴炳圭씨의 3者同業체제였던 해태그룹이 2代에들어 각기분가、해태제과중심으로 명실공히 그룹총수로 부상。뉴욕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아직기업경영의 경륜이 짧은 탓인지 그동안 심한 자금난을 겪었던것으로 알려졌고 최근에는張여인에게30억원의 어음을 내주어 구설에 오르고 있다。

작년에 承繼한 經營 학도

한국화약 金昇淵씨

지난해 8월 부친金鍾喜회장이 타계하면서 그룹을 인수받은 32세의 2세경영인。국내 재벌기업총수중 가장 젊은편이나 지난 4년여동안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그룹경영수습을 해온데다 본래부터 컴퓨터처럼 정확하고 판단력이 뛰어나 18개 계열기업을 거느리는데 무리가 없다는 평을 듣고있다。京畿高2년때 도미、캘리포니아써의 멘로대학에서 경영학 (석사)、시카고의드폴大에서국제정치학을전공했다。

京畿·와세다 나온 엔지니어

曉星그룹 趙錫來씨

창업주趙洪濟씨의 맏아들로 종합상사、섬유、중공업、석유화학등 폭넓게 뿌리를 뻗고있는 2세재벌총수。京畿高와일본와세다化工學科그리고 美일리노이대학원을 거친 엔지니어경영인。韓國타이어의 洋來씨、大田皮革의 旭來씨와함께 曉星은 3개소그룹으로 분가되어있고 각기경영은 독자적。그룹내의 인화단결을 강조하며 고전음악 스키를 즐기고 골프는 핸디12。당년48세로 慶南咸安출신。

人和團結을 앞세우는 2世

럭키그룹 具滋暻씨

창업주인 故 具仁會씨의 맏아들로 12년전 럭키그룹 경영권을 승계받은 2세재벌。慶南 晋陽출생으로 당년57세。晋州사범학교를 나와 한때 고향의 智水國校、釜山 공립사범학교에서 교편을 잡은적도 있다。산하 35개기업에 연간매상 4조원、종업원 4만5천명을거느리며치약비누가전제품등주로생활용품에치중。인화단결을강조하며 아직도 경영체제는 가족중심의 족벌경영。취미는 분재 원예。

축
일간지발행 1주년기념

북미의 25시를 지키는 파수대 토론토·한국일보
민중의 목탁으로써 교민을위해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네디꽃집

2194 BLOOR ST. W. 762—1572 김웅일

前科숨겨 軍에…公職생활

國會報告서 밝혀진 李哲熙씨의 行跡…1년동안 服役

43년 우편환 竊盜·사기죄로 女優·日女사이 오가며 同居

거액어음사기사건으로 검찰에 구속된 李哲熙씨(59)는 절도·사기등 혐의로 징역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전과사실을 은폐하고 중앙정보부차장과유정회의원등 공직생활을 했으며 독신주의자로 자처하면서 육체파여배우 D모, K모양및 일본여성과 동거한등 여성편력도 다채로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李는 또 어두웠던 성장과정과 전과사실등을 감추기위해 그의 가족까지도 멀리하고 모친상을 당했을때도 고향에 가지않고 성묘한번 가지않을만큼 철저한 비밀주의자였다.

검찰이 국회에 낸 종합수사보고자료는 「張玲子여인사건」의 성격을 남편李哲熙씨의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새롭게 부각하면서 李씨의 신상에 대해 지금까지 3차에 걸친 검찰발표때보다 훨씬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出生및 경력

李씨는 지금까지 日本東京출생으로 알려져왔으나 사실은 23년9월1일 충북淸原郡梧倉面塔里288에서 태어나 梧倉국교를 졸업했다. 그가 고향이나 가족관계를 숨긴것은 출세에 대한 집념때문이었는데 고향에서는 그를 냉혈한이라고 서슴없이 부르고 있다.

李씨의 부모는 모두 사망했으나 동생은 고향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여동생도 출가해 충북鎭川에서 살고있다.

李씨는 처음 검찰에서 자신의 가족들이 비행기사고로 숨진것처럼 진술했으나 지난 23일 검찰은 李씨의 고향에 수사진을 보내 그의 친족들이 살고있음을 확인하는한편 본인의 가족관계 주장이 완전히 거짓이었음을 밝혀냈다.

李씨는 고향에서 국민학교를 졸업한후 중학교학력은 없이 日本육군 나까노(中野)정보학교를 졸업(미확인)한후 46년 육사2기생으로 졸업, 임관했으며 군재직기간중인 47년3월 부산D대학전치과에 입학, 49년3월 2년중퇴하고 다시 51년3월 서울D대학 경제학과3년에 편입, 52년3월 졸업했다.

李씨는 육군소위로 임관해 군생활을 하면서 日本대학중퇴로 학력을 조작했으며 지난 재직시 방첩부대장까지 지낸후 73년 육군소장으로 예편했으며 74년 중정차장을 지냈다.

前科사실

그의 전과사실은 釜山교도소에 보관중인 형집행원부와 수형인명부에 밝혀진것으로 李씨는 42년12월 日本東京우체국에서 50원짜리 우편환을 절취, 인출한 혐의로 43년 6월19일 京城지법仁川지원에서 절도, 유가증권위조및 동행사·사기죄등이 적용돼 징역단기1년, 장기3년을 선고받고 金泉소년원에서 1년간 복역했다.

여성편력

李씨는 그동안 독신으로 알려져왔으나 사실은 5·16혁명직후인 방첩부대장 시절부터 여성편력을 해왔음이 드러났다.

李씨는 당시 우리나라영화계에서 요염한 자태로 유명했던 여배우 D모양을 의도적으로 부대파티에 초청, 그의 힘을 은연중 과시한후 동거에 들어갔다.

그후 육군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하다가 모기관에 들어간 65년부터 67년까지 2년간은 당시 우리나라 제일의 육체파여우로 불렸던 K모양을 만나 동거하기도 했다.

K양이 李씨의 파트너가된 계기도 그가 파티에 연예인들을 불러들였기 때문이며 K양은 권력에 대한 호기심에서 李씨에게 이끌리게 됐다고 말한것으로 전해졌다.

李씨는 또 75년 日本출장때는 일본인친구가 술자리에 초대한 日本여인 도시마·도미꼬와 알게돼 76년까지 두사람이 한국과 日本을 오가면서 정을 통해와 현재 4살난 아들까지 두고있다.

李씨는 張여인과는 79년12월 張의수양어머니 張모보살의 소개로 알게됐으며 80년 6월 동거를 시작, 81년1월 南海大興寺에서 1차로 결혼식을 한후 5월16일 혼인신고까지했으며 82년2월14일 서울 사파리클럽에서 현역국회의원7, 전직국회의원2명, 전직장관1명, 당시은행장및 기업체대표등 1백20여명을 하객으로 초대, 다시 결혼식을 올렸다.

李씨는 張여인과의 소개를 부탁하기위해 張여인 수양어머니 張모 보살이 자주다니던 서울冠岳區上道洞 白雲岩에도 여러번 나타난것으로 밝혀졌다.

李·張부부어음사기사건 관련자 23명늘어 40여명

李哲熙·張玲子부부의 어음사기사건에대한 국회보고서에의하면 이사건에 직·간접으로 개입돼 검찰의 조사를 받거나 용의선상에오른 인물은 李·張부부등 구속자20명과 수배된사채업자등을 제외하고도 40명이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숫자는 지난22일의 검찰종합발표때보다 전직 중앙정보부요원 사채업자 암선하수인등 23명이 더늘어난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중에는 사건에 개입했거나 청탁을한일이없다고 밝혀진 前民正黨사무총장 權正達의원을 비롯 李·張부부의 재산을 관리해준 전韓一은행장 韓洪洙씨 東洋투자금융사장 韓瑞출씨등 금융관계인이 등장했으며 大和산업의 중요부서를 權영백 전중정제1국장이 맡는등 전직 정보기관원만도 4명이 등장했고 한국감정원의 이사와 부원장도 알게 모르게 개입됐음이 드러났다.

관련자중엔 사채업자가 가장많았는데 대부분 1백억원대이상의 돈을 굴려왔으며 李·張부부의 비서 경비원 운전사등 사용인 10여명은 각각의 심부름값으로 최소한 2억3천만원을 주택구입조로 받은것으로 밝혀졌다.

◇국회보고에 새로나온인물

◇거래 하수인

▲임문순 (大和산업 비서실부장) : 전 中情차장보좌관
▲權영백 (大和산업 연구개발실장) : 전 中情제1국장
▲金재진 (慶州유드호스텔 대표이사) : 전 中情심의관
▲朴在燦 (大和산업 개발부장) : 전 中情정보국장 보좌관실 자료담당관
▲洪종면 (사채업자) : 李·張부부에게 大保증권등 증권회사로부터 라이프주식등80만주를 8억원에 매입해줌
▲정관용 (사채업자) : 李·張부부에게 大韓증권등 증권회사로부터 大韓석유공사주식등 20만주를 2억원에 매입해줌
▲임태수 (사채업자) : 李·張부부에게 24억원의 선매대금을 지급하고 37억원상당의 東亞建設주식등 270만주를 인수
▲金지명 (사채업자) : 李·張부부에게 16억원의 선매대금을 지급하고 25억원 상당의 大韓석유주식등 220만주를 인수
▲임창근 (사채업자) : 李·張부부에게 7억원의 선매대금을 지급하고 10억원상당의 漢陽住宅주식등 90만주를 인수
▲白낙형 (사채업자) : 張東浩로부터 共榮土建등 어음 총734억원의 할인의뢰를받고 할인해줌
▲南문성 (李·張부부의 사용인)
▲尹석재 (〃)
(李 張부부가 수고비로 8천만원을지급)
▲金용남 (李·張부부의 비서)
▲高한상 (〃 경비원)
▲蔡종률 (〃 〃)
▲李종성 (〃 〃)
▲宋준규 (〃 〃)
▲신동준 (〃 운전기사)
▲金광수 (〃 〃)
(李·張부부가 주택자금으로 1억5천5백만원을 줌)

◇기타

▲洪鍾烈 (張玲子의두번째남편) : 高麗製鋼(株) 사장으로 77년張여인에게 생활보조금4억원, 78년 이혼위자료로5천만원 지급
▲「노시마도미코」 (李哲熙가 동거했던日本여인)
▲朴鍾鎰 (한국감정원이사) : 林在璘의고향후배이며 李圭光의 군대부하로 양인의접촉을 주선
▲金廣正 (한국감정원부원장) : 朴鍾鎰이林在璘 李圭光양인의 접촉을 주선하는곳에 동행

더큰 私債업자 捜査

大檢 大和산업사장 刑事처벌키로

李哲熙·張玲子부부 어음사기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29일 지금까지 드러난 사채업자들 배후의 「더큰손」에 대한 본격수사에 나서는한편, 張여인의비서 金勇男씨(42·전 기관원)가 李씨부부 집에서 발견된 미화42만달러를 암달러상을 통해 환전한사실을 밝혀내고 金씨를외환관리법위반혐의로구속영장을신청했다.

검찰은 또李씨부부의 지시를받고 관상능력이 없으면서도 共榮토건에 9백억원상당의 大和산업어음을 발행해주었던 大和산업사장 金재진씨(49·전중정심의관)에 대해 사기방조죄이외에 배임혐의를 추가, 형사처벌키로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미수배된 사채업자 金永哲 黃赫老씨이외에 張여인에게 어음할인을 해준 白낙형씨등3명도 추가수배했다.

검찰에의하면 비서 金勇男씨는 1년여동안 張여인의비서로 일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李씨부부를위해 암달러상을 찾아가 10여차례에걸쳐 42만달러를 바꿨다는것.

한편 수사팀장인 대검중앙수사부 2과장 成敏慶부장검사는 이날 검찰의 국회답변자료에서 李哲熙가 주역으로 바뀐 경위에대해 『그간의 수사에서는 두사람의 역할분담을 명확히가리지않았으나 지난 22일 수사종합발표 이후 張여인의 범행동기 李哲熙의 신분등 불투명한 점을 집중추궁, 밝혀낸 「사실」이라고 말했다.

張여인은 자신의꿈이 「觀音寺건립, 불교병원, 자선병원, 박물관건립이라고만 말해 범행동기가 미흡했으나 李씨와 李씨측근들을 집중 추궁한결과 李씨가 재벌로 부상하려는 계획을 갖고있었음이 드러났으며 李씨의 고향인 충북淸原에 수사진을 보내 李씨의 진술등 거짓부분을 가려냈다는것이다.

韓電大田支社, 일부後納조차 거절

모내기철에 양수장斷電

昇壓안했다고…6萬평 물못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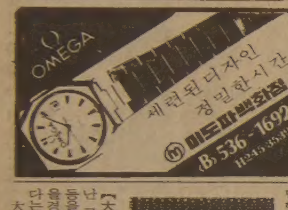
【大田】충남大德군九則면松江·鳳山·官坪里등 3개마을 1백여가구 농민들은 마을양수장에 대한 단전조치를 당한후 농번기를 맞아 6만여평의 논에 모내기를 할수 없게돼 애를 태우고있다.

이곳 농민들은 지난80년말 2백40여만원을 들여 松江리에 사용전압 1백10V의 양수장시설을 마련했으나 1년만인 지난해12월 한국전력공사 大田지사에 의해 승압공사가 안됐다는 이유로 단전조치를 당했다.

한국전력공사 大田지사는 지난해 大德군내 일부지역전력수용가의 사용전압을 종전의 1백10V에서 2백20V로 끌어 올리면서 松江里양수장 시설중 변압기등 기존 전력관계기기를 승압에 맞게 개조토록 3차례에 걸쳐 시달했으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에 불응, 단전조치를 하게 됐다는 것.

이때문에 인근 甲川의 물을 끌어 올려 농사를 지어야 하는 이곳 농민들은 농번기를 맞아 모내기를 하지못한채 애를 태우고있다.

松江里이장 金洪珏씨(47)는 「총소요공사비 3백만원중 우선 1백만원만 받고 승압공사를 해준후 나머지 2백만원은 가을의 추수기에 갚도록 해달라고 관계당국에 수차례건의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제때 모내기를 해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선처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皓】



신호등 무시한行人 轢傷 事故운전사 處罰 못한다

大邱地法 公訴기각

【大邱】횡단보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라도 행인이신호등을 무시하여 사고를일으켰을경우 운전사를 처벌할수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大邱지법제3형사단독 李碩雨판사는 29일 교통사고특례법위반죄로 금고1년을 구형받은 權慶洙피고인 (31·大邱市東區新川洞264의27)에 대한 판결공판에서이같이 판시하고검찰의공소를기각했다.

李판사는『운전사가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다해 운전하다 보행자의 잘못으로 일으켰을경우 운전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처벌할수 없다』고 판시했다.

權피고인은 지난 3월16일 상오10시께 大邱市北區七星洞 新川橋네거리에서 대구7라5873호 피업을 몰고가다 신호등을 무시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던 朴漢億군(19·大邱市東區新川洞250)을 치어 전치10주의 상처를 입혀 교통사고특례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금고1년형을구형받았었다.【皓】

◇육군사관생도들과 포즈를취한 82미스코리아 일행。

陸士생도의날 축제 미스코리아들 訪問

육사의 축제인 82생도의날 행사가 화랑대 교정에서 이틀동안열렸는데 29일에는 82미스코리아 5명도 생도들의 특별파트너로했다.

육사에는 지난27일 한미교1백주년을 맞아 미육사생(웨스트포인트)생도4명이방문, 약2주간 체류예정으로 우리생도들과 내무생활을함께하면서 우의를 두텁게하고있다.

滯賃사장 도주

세창고무 丁寅振씨 수배

【釜山】노동부부산東萊사무소는 29일 5억3천여만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하지않고 달아난 세창고무공업사대표 丁寅振씨 (45·東萊區溫泉洞1309)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전국에지명수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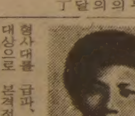
丁씨는 지난2일까지 지급키로했던 이회사종업원 申榮秀씨(30)등 3백70명의 4, 5월분 급료7천8백만원을 체불하고 60여명분의 퇴직금 1백20만원, 종업원들의 국민저축금 1백96만원등 모두8천2백만원을 지급하지않고 지난18일 부산은행 東萊지점으로부터 1천6백여만원의 어음과 수표가 돌아오자 부도를내고 달아났다는것.【皓】

大淸湖의 토막시체 신원은 强盜전과자

【淸州】속보=大淸湖토막시체유기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29일 피해자의 신원을 충북淸原郡南二面外川里 김문수군(20·강도전과자)으로 밝혀내고 김군의 연고지에 형사대를 급파, 주변인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강도전과자로 지난해 淸州교도소에서 출감한후 淸州市石橋洞에서 애인과 함께 동거생활을하며 자동차운전을 배워오다 지난15일께 가출했다.

이에앞서 경찰은 28일하오 8시께 양팔이 처음 발견됐던 곳에서 서북쪽으로 1.8㎞떨어진 곳에서 김군의 양쪽다리를 발견했다.【皓】



◇金汶洙씨

「웨이터40년」 서울驛 그릴식당장 金穆씨

前大統領들에게도 시중든 외곬

서울역 그릴식당장 金穆씨(58·사진)는 40년을 웨이터노릇만 했다. 열여덟살때 서울역그릴에 들어와 쉰여덟이된 지금까지 직장도, 직업도 바꾸지않고 외곬으로 살아 왔다.

천장이 유난히 높아 썰렁한 느낌을 주는 서울역그릴을 이제는 최고급식당이라고 할수없다. 그러나 20년전 까지만해도 서울에서 제대로된 양식을 먹을수 있는 곳은 이서울역그릴과 반도·조선 두호텔 뿐이었다.

金씨는 이 그릴에서 40년을 봉사하는동안 웨이터라는 직업이 요구하는 절도, 정중, 친절이 자신의 인격속에 녹아버렸다.

해방전 서울역에 처음 웨이터로 취직했을땐 식당차를 타고 부산에서 출발, 압록강을건너 奉天까지 긴 서비스여행도 했고 해방도 식당차에서 맞았다.

또 크고작은 사교모임이 벌어지면 金씨는 으레 안내 접대를 책임지는 웨이터의 책임자로서 초빙되었다. 지금도 서울에서 내노라는 호텔이나 양식집의 웨이터치고 金씨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릴에서 일하는 틈틈이 요인들의 기차여행때마다 식당차를 탔다. 李承晩박사도, 趙炳玉박사도 그리고 崔圭夏전 대통령도 金씨의 시중을 받았다.

그러나 金씨의기억에 가장 생생한 사람은 朴正熙전 대통령. 기차여행때마다 金씨를 태웠다. 金씨의 말로는 1백번은 만났다는것. 『金군, 오늘 꼬리곰탕이 어떤가』 金씨만 보면 朴대통령이 묻는 말이었다.

金씨는 朴대통령의 식성이 변해가는것을 한눈으로 볼수있었다. 초기에는 맵고 짠음식에 소주를 많이 마시더니 점점 김치도 헹구어 먹고 술도 포도주를 마시더라는 것.

어느날 기차를탄 朴대통령이『金군, 거기좀 있게』하며 세워놓고는 곁에있는 철도청장에게『하는 일은 바꾸지말고 저사람좀 도와주게나』고 말해 직급과 봉급을 올려줬다는 이야기도 있다.

옛날 金씨가 웨이터를 시작했을 때만해도 규수를 골라서 장가를 들 정도로 이직업이 인기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6·25이후 웨이터를 천시하는 경향이 나타나더라는것. 뒤죽박죽이었던 지난40년동안 한번도 하는일을 바꾸지않은 그는 天職을 통해 완성된 인물이다.【金首宗기자】

YOUNG SOOK '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 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민 영 숙
(B)368-7961 (R)690-5217

운전교습
SOUTHERN ONTARIO
DRIVING SCHOOL SPECIAL
10시간의 개인운전교습 집으로나 사무실로 모시러갑니다.
ONLY $129.00
무료신청서, 무료핸드북, 무료필기시험에 필요한것.
한번 와 보십시요. ※조금의 영어가 필요함.
월-금 오전10시-오후5시
2489 BLOOR ST. W. SUT210
(BLOOR & JANE 써브웨이)
766-4441, 766-4644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매일공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내고향통닭집
냉 면
칼국수 전문
658½ BLOOR ST. W.
☎ : 537-0432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15% 할인
⊙전자 CASH REGISTER
⊙각종 전기전자 계산기
⊙각종타자기
⊙금고, 책상, 캐비넷
김 성 수
교포경력(TORONTO 15년 경력)
분납가능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

7종경기·投槍서 또 한국新

종별陸上 金順蘭 女일반 기염… 梁殷寧 남일반 投槍서 74m48

29일 서울운동장서 속행된 제11회 전국종별 육상선수권대회 이틀째 여일반 7종경기(1백m허들, 투포환, 높이뛰기, 2백m, 넓이뛰기, 투창, 8백m)서 金順蘭(부산산업대)은 4천8백26점을 마크,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종전한국최고기록은 金順蘭이 작년 이대회서 세운 4천7백61점이다. 이날 남일반 1천5백m레이스서 尹忠求(제일제당)는 3분50초2의 호기록으로 우승했다. 尹은 金福柱가 시즌오픈기록회서세운 3분49초에는 미달했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남일반 투포환서 韓敏洙(성균관대)는 14m81을 던져 그가 지난 시즌·오픈기록회서 세운 한국기록 14m88에 7㎝ 미달했다. 여자 넓이뛰기 한국기록보유자인 金美淑(이화여고)은 이날 여고 2백m에 출전, 25초68로 우승하여 2관왕이되었으며 단거리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남일반 투창에서 梁殷寧(영남대)은 74m48을 던져 지난4월 시즌 오픈 기록회서 李喜聖(한국체대)이 세운 한국기록 72m60을 1m88 경신하고 한국신기록을세웠다.

▲남 셉포어1천m=①연대4분09초2 ②고대4분27초4

金浣·安海淑등 선발 새 卓球상비군으로 남녀 10명씩

29일 용인탁구훈련원에서 막을 내린 상비1군 1차 평가전에서 종합1위를 차지한 金浣(제일합섬)과 安海淑(동아건설)등 남녀 각10위까지 상비1군으로 뽑혔다. 남자부에서 金浣은 13승1패로 1위를, 尹吉重(삼훈)은 12승2패로 2위를 차지했으며 여자부서는 安海淑 朴末連(서울신탁)과 10승4패 동률을 이뤘으나 安이 승자승원칙에따라 1위에 올랐다.

◇종합순위 ▲남자부=①김완 13승1패 ②윤길중 12승2패 ③오병만 9승5패 ④권오택 8승6패 ⑤조동원 8승6패 ⑥김태수 8승6패 ⑦이재훈 8승6패 ⑧신동현 7승7패 ⑨노윤관 7승7패 ⑩안재영 7승7패(이상득실세트차) ▲여자부=①안해숙10승4패 ②박말련10승4패(승자승) ③박말분9승5패 ④양영자9승5패 ⑤황남숙9승5패 ⑥윤경미8승6패 ⑦김정미8승6패 ⑧김숙희8승6패 ⑨신득화8승6패(이상득실세트차) ⑩김명희7승7패

大學선발 派遣 세계大學生 축구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7월25일부터 8월6일까지 멕시코에서 열리는 세계대학생축구대회에 대학선발팀을 파견키로 했다. 축구협회는 국가대표 선수를 제외한 대학선발팀을 구성키로 했다. 한국은 76년 우루과이에서 열린 세계대학생대회에서 우승한바있다.

한국일보 633·2361

프로야구

三美、해태에 또져 三星은 MBC大破

金光洙3안타3打點 OB、롯데깨고 優勝향해 快走

【大田=方錫綺기자】작은곰 金光洙가 손목부상의 멍에를 풀고 프로야구 전기리그우승을향해 치닫는 OB베어스에 1승을 더해줬다. 29일 大田에서벌어진 경기에서 金光洙는 4회말2타점 적시타로 승리의발판을 마련하고 후속타로 결승점을올리는등 3타수3안타 3타점1득점의 대활약으로 OB가난적 롯데자이언츠를 5-3으로 물리치는데 결정적인공을 세웠다.

이날 三星라이언즈는 大邱서 MBC靑龍과대결 8회말 咸學洙의 3점홈런을 비롯한 12안타로 6-2로 승리, 17승11패로 2위를 지켰다.

OB는 지난4월5일 손목부상이래 결장했던 2루수 金光洙의 컴백으로 19승7패를 마크, 전기리그 우승을 눈앞에 두고있다.

大田 첫원정에나선 롯데는 6회까지 OB의 좌완선발 鮮于大游에게, 그후로는 우완에이스 朴哲淳에게 눌려 초반의 실점을 만회하지 못했다.

OB는 1회말 선두1번楊世鍾이 좌전안타를 날리고2死후4번 金宇烈의 적시타로 선제점을 기록, 4회말에는 1死후 6번 鄭然鎬의 중전안타 7번 金卿文의 좌월2루타, 8번 金光洙의 중전안타등 연속안타와 2死후 3번 楊世鍾의 중전안타로 3점을 추가, 대세를 결정지었다.

한편 光州경기에서 홈팀 해태타이거즈는 9회말 金鍾模의 홈런으로 三美슈퍼스타즈를 3-2로 물리쳤다.

◇29일전적

▲大田

롯데	000	002	100	—3
OB	100	301	00×	—5

◇광주

삼미	000	002	000	—2
해태	002	000	001	—3

▲홈런=金城漢(3회말·2점) 金鍾模(9회말·이상해태) 趙興雲(6회초·2점·삼미)

◆대구

MBC	000	011	000	—2
삼성	001	000	23×	—6

▲홈런=咸學洙(8회말·3점·삼성)

◇전기리그 중간순위 (29일 현재)

팀	승	패	승률
①O.B	19	7	.731
②삼성	17	11	.607
③MBC	14	12	.538
④해태	11	14	.440
⑤롯데	10	15	.400
⑥삼미	7	19	.230

뉴시네마의 旗手 스필버그 監督

新作 2편으로 3億弗 벌듯

어린이들겨냥 製作

○…「조스」「잃어버린성궤의 약탈자들」「클로스 인카운터」등으로 유명한 뉴시네마의 기수 스티븐·스필버그감독의 새영화「E·T」「장난꾸러기 요정」이 곧 개봉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있다.

스필버그는 상어, 우주인, 뱀등 환상적인 소재를 이용하여 일급 오락영화들을 만들어 최고흥행수익을 올리는 감독으로 유명하다. 「조스」는 총 4억1천만달러, 「클로스인카운터」는 2억5천만달러, 「잃어버린…」은 총 3억1천만달러를 거둬들였는데 이 두작품도 최소한 3억달러이상은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장난꾸러기요정」은 심령과학 공포영화로 음향과내용이 사람의 혼을 빼낼 정도로 무서운 영화. 「E·T」는 스필버그가 직접고안해낸 스토리로 외계의 동물에 관한 이야기다.

두 작품의 개봉을 앞두고 할리우드의 영화평론가들은 앞서 제작된작품은 앞서제작된 작품은 전주곡에 불과할뿐 이라고 극찬.

이 두영화는 컴퓨터세대의 등장에맞춰 어린이들에게 컴퓨터의 정교함을 보여주기위해만든영화. 그런데 「장난꾸러기요정」의 개봉을 앞두고 CRB(영화분류및등급위)에서 이 영화에 R등급(16세이하는 꼭히 부모나 성인동반)을 매겨 스필버그가 이에 항의하고 나섰다. 결국은 한등급 떨어져 PG등급(부모들의 지도를 권유함)을 받아냈다고.

월드컵蹴球에 포클랜드波高

개막2週앞두고 英·아르헨 向背주목

英3팀、不參하면 큰 타격

"스포츠냐 愛國心이냐" 輿論분분

豫選리그후 兩國對決가능

해외스포츠話題

스페인 월드컵 축구대회를 2주일 앞두고 대회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은 포클랜드사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회출전 24개팀 가운데 불참의사를 밝힌 나라는 아직까지 없지만 英國과 아르헨티나간의 전투가 더욱 악화되어 걷잡을수없는 파국으로 치달릴경우 교전당사국인 英國 또는 아르헨이 불참하지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관심의 초점은 아르헨보다 英國의 향배. 英國에서 이 정치적이유로 대회불참을 선언한다면 대회운영에 치명적인 혼란이 일어나게된다. 英國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등 3개 대표팀이 이번 스페인 월드컵에 출전하는데 英國의 3개팀이 월드컵대회를 보이코트한다면 대회에 치명적인 혼란이 일어나게된다.

대회조직위원장 라이문도·사포타씨와 국제축구연맹(FIFA)은『대회는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될것』이라고 말하고있지만 걱정하는 표정.

英國계 3팀과 아르헨은 1차예선리그서는 다행히 대결하지않게 대진이편성되어있으며 2차리그부터 英國-아르헨 축구대결이 가능하다.

아르헨도 戰況惡化되면 不參

포클랜드 전투로 쌍방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목숨을 잃고 있는 절박한상황에서 과연 태평하게 적대국과 축구 경기를 해야하는가 하는데 대해서도 의견이분분하다.

전쟁은 전쟁이고 스포츠는 스포츠라는 순수파가있는가 하면 적대국과의경기는 비애국적인 행위라고 몰아붙이는 사람도 적지않다.

아르헨이 열세에 몰리게되면 아르헨정부가 그들의 대표팀에 월드컵출전을 포기토록 종용할 가능성이짙은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아르헨이 불참하면 우루과이가 代打者로 나설준비를 갖추고 있다는것. 【外紙】

한국、日連破 우승 33—23

핸드볼豫選 丁順福숏·블로킹18개

【東京=鄭東吉특파원】한국여자 핸드볼팀은 29일 최종전서 日本을 꺾고 4전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은 東京실내체육관서 끝난 제8회 세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 아시아지역 예선 최종일 日本과의 대전서 33—23으로 완승, 4전 전승을 거두었다.

이미 세계선수권대회 티킷을 따낸 한국은 日本을 맞아 여유있게 게임을 운영, 1차전과는 달리 쉽게 리드를 잡았다. 한국은 尹秉順 金玉花의 숏이 맹위를 떨치고 柳京美 金先玉 張玉粉이 고루활약 전반을 15—8로앞섰다.

이번 대회서 한국을 우승으로 이끈데 수훈을 세운 수문장 丁順福은 전반에서 11개의 숏을 블로킹했으며 후반에서도 7개의 숏을 막아 수훈을 세웠다.

日本은 후반한때 22—20까지 따라붙었지만 한국은 尹秉順 柳京美의 숏으로 달아나 33—23으로 이겼다.

◇최종일 전적

한국 33(18—15 15—8)23 일본

◇남고 넓이뛰기서 江陵明倫高의 遠亨俊이 힘차게 뛰고있다.

韓日프로야구 交驩

徐종철 訪日계기 亞洲리그 創設대두

【東京=聯】韓日양국의 프로야구계는 徐鍾喆 韓國프로야구협회 총재의 訪日을맞아 앞으로 선의의 경쟁과 활발한 교환경기를 통해 상호발전을 이룩하자고 다짐했다.

日本측의 커미셔너 시모다씨는 28일 도오꾜(東京)시내 팰리스호텔에서 베푼 徐총재 환영리셉션에서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 프로야구가 日本보다 50년늦게 시작했지만 무서운 저력이 있는만큼 日本도 허리를 졸라매고 분발해야할 것』이라고 한국실력을 평가한후 『양국을 통해 가장 대중적인 국가스포츠인 야구를통해 우호를 다지자』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徐총재는『한국프로야구가 아직 걸음마를시작한 어린아이이지만 열심히노력해서 따라잡겠으니 日本도 열심히 도망가 달라』고 말했다.

이날 리셉션에는 요미우리·자이언츠팀의 쇼오리끼(正力)구단주등 日本프로야구 12개구단의 모든 구단주를비롯, 張勳씨와 나가시마(長島)前자이언츠 감독등 야구계및 崔慶祿주일대사 스노베·료오조(須之部量三)日외무차관등 각계인사 3백여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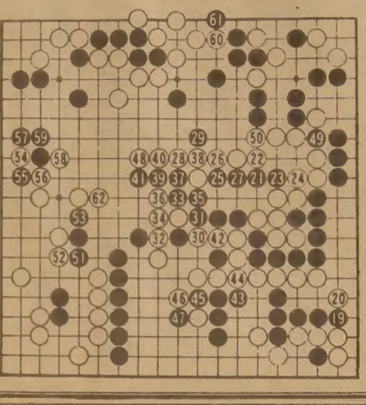
張勳씨는 韓·日·中共 3국이 교환경기를 가질수있도록 아시아리그를 설립하는 추진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는데 이날 과거 日本프로야구계의 슈퍼스타였던 張勳·나가시마 두사람이 한참 귀엣말을 속삭여 관심을 끌기도했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416)533·2361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21局第10譜 1—9 162 (각5시간·덤5집반)

白(7段) 徐奉洙 〈4勝1敗〉
黑(4段) 姜 勳 〈4勝1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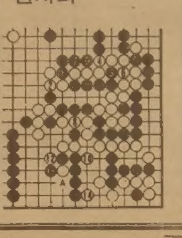


黑21은 마지막도전이었다. 그러나 벌써 포석상태. 무섭게 강겨오는 黑을 무사주의로 구슬린것이 黑22이하 28이다. 하지만 더는 참지 못했는지 강연히 白30이하로 바둑을 끝내려한다.

이래서 중앙의 육탄전이 벌어졌는데 실은 白34때 黑이 한번 대담하게 변화를 구해볼 찬스는 있었다.

즉 黑35로 무력하게 잇지말고 참고도처럼 黑1로 끊어보고 싶다는 것이 대다수기사의 국후의견이다. 이것이면 黑9까지 위쪽白을 잡게되는데 白은 10이하 14로 우하 귀쪽黑 몇점을 잡는데 그칠것이니 전체 형세로 막상막하의 계가바둑이 되었다는것이다. 참고도의 수순중 白10을「A」는 黑10을선수로 당할 다음 黑13으로 연결한다.

黑、마침내 던지다



실전보처럼 각생을 해서는 黑은 집망상태. 게다가 白62에이르러 중앙黑대마 파 좌측黑 돌들의 하나를 버려야하니 黑4단은돌을거둘수밖에 없었다.【一人】

종교서관
535－1920
서적판매및 대여
일반서적
다량입하
월～토：오전10：30～오후
714 BLOOR ST. W.

流星의 賦 〈395〉

李炳注 作
李友範 畵

勇名 天下에 떨치다 ⑱

홍제남은 수원판관 겸 기호안도(畿湖安道) 조방장(助防將)으로 임명되고, 특히 그의 전공이 가상하다고 하여 절충장군(折衝將軍)으로 초수되었다.

이로써 그는 기를 펴고 작전을 수행할수 있게된 것인데 그런데도 제남의 마음이 울울한 것은 부친의 사망과 내외종간인 이여남의 사망이었다.

조인식과 신협이 축하연을 베푸려고 했을때 그는 정색을 하고 나무랐다.

『아버지를 살리지 못한 불효의 죄인이 높은 관직을 받았다는 것은 오히려 수치일 뿐이며, 왜적을 감살으로 내쫓지 못한 이 판국에 무슨 축하를 하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생각해 보라. 형제의 의를 맺은 우리의 군사가 얼마나 죽었는가. 그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마를 날이 없거든 어찌 나만이 기쁘다고 하겠는가』

그러나 조인식의 말은 분명했다.

『거자(去者)는 거의(去矣)라는 것이 아니겠소. 거자를 생각하고 애통하기만 한다면 사람의 도리가 아닐 것이오. 오늘 우리 홍장군이 관직을 받은 것은 장군 혼자의 기쁨이 아니고 우리 모두들의 기쁨이오. 슬퍼할 땐 슬퍼하고 기뻐할 땐 기뻐할 줄도 알아야 하지 않겠나이까. 우리 군사들의 사기(士氣)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도 자축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오』

이렇듯 조인식을 비롯한 부하들의 간청에 못이겨 이미 전사한 군사들의 위령제를 겸하여 조촐한 잔치를 베풀었다.

노래가 있고 춤도 있었다. 그런 가운데 지난 전투의 회고도 있었고, 당시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 조정의 동정에 관한 얘기들이 오갔다.

그들의 얘기에 빙자하여 당시의 정세를 간추려본다.

7월에서 9월에 이르는 사이, 육상에서의 전투는 대소 19차에서 있었고, 이미 얘기한바 있는대로 해상에선 한산대첩(閑山大捷)이 있었다.

의병들이 각처에서 일어났다. 전판결사 김천일(前判決事 金千鎰), 첨지 고경명(僉知 高敬命)을 비롯하여 현감 곽재우(郭再祐) 전좌랑 김면(前佐郎 金沔) 전장령 정인홍(前掌令 鄭仁弘), 전제독관 조헌(前提督官 趙憲), 전영해부사 최경회(前寧海府使 崔慶會)등을 필두로 유종개(柳宗介) 승영규(僧靈圭) 조웅(趙熊) 민여운(閔汝雲) 임희진(任希進) 심우신(沈友信) 변사정(邊士貞) 심수경(沈守慶) 조대곤(曺大坤) 이산겸(李山謙) 청허선사 휴정(淸虛禪師 休靜) 우성전(禹性傳) 조익(趙翊) 권응수(權應銖) 정세아(鄭世雅) 조성(曺誠) 신회(申晦) 정대임(鄭大任) 이봉(李逢) 임계영(任啓英) 성천유(成天裕) 정경세(鄭經世) 이홍도(李弘道) 권경호(權景虎) 조정(趙靖) 채유희(蔡有喜) 이정암(李廷馣) 김대현(金大賢) 곽수지(郭守智) 김해(金垓) 임흘(任屹) 금응훈(琴應勳) 이정백(李廷栢) 배용길(裵龍吉) 조현(趙玹) 백현룡(白見龍) 신홍도(申弘道) 이인호(李仁好) 이영남(李榮男) 민근효(閔根孝) 김윤명(金允明) 정문부(鄭文孚) 강희열(姜希悅) 박사제(朴思齊) 권세춘(權世春) 여대로(呂大老) 이대기(李大期) 허언심(許彦深) 김홍민(金弘敏) 이로(李魯) 김치중(金致中)등, 이밖에도 수십에 넘는 의사(義士)들이 각각 병을 모아 의거(義擧)한 것이다.

교 회 안 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8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30 오후 2:00 영어설교 오후1:30 금요저녁 9: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시민교회	조성관	오후예배 1:00 성경공부 2:30	148 Thornridge Dr. Thornhill	266－4918
대한교회	조남유	주일오후 2시	3819 Bloor St. W.	621－6340
순복음토론토	이필주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 8: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주일대예배11:30 수요예배오후 7:30 영어예배 오전10:30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30 주일 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장희선	주일낮 11시 수요예배 8시 주일찬양예배7시 주일새벽기도 6시	135 Briscoe St.E.	68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오전11:00 주일오후 1:00 금요기도 밤10시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용진 정춘수	주일오후 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30 성경공부 2:40 토요기도 밤7시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00 주일오후 1:00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30 수요오후 7:00	7 Gretna Ave.(Victoria Pk.&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수요새벽5:30 중고등영어 오후1시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선교교회		주일오후 1:00	1 Greenland Rd.	444－8002
서머나감리교회	박준하 김옥희	주일영어 1:00 주일성경 1:00 주일예배 2:00 수요예배 7:30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Ont.	751－3611 752－9860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평일기도 오후2시 토요집회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Tor.	698－5363
베다니성결교회	김요환	주일오후 1시 성경공부 주일 오후3시	2799 Weston Rd.	248－9709 248－1653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오후 1:30 4:00 수요오후 7:30	65 Mayall Ave. Downsview	977－5202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00 금요일 오후6시 성경공부	1272 Weston Rd.	242－4964 665－2866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10:30	126 O'connor Dr. at Pape Ave.	423－9880 423－8400 (복음다이알)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00 금요오후 8:00 주일오후 4: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일요오후 2:3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감리교회	여웅순	주일오후 1:30 금요예배 7:30	2385 Warden Ave.	444－3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웅출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30	963 Pharmacy Ave.	755－9766 755－1528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630－4284
한인중앙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9:00	502 Bathurst	961－8361 전화설교
천주교회	고종옥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83 Power St.Tor.	863－0415
침례교회	홍신웅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금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281－7772
키치너 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 1:30	54 Queen St. 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청대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장로교회	박희인	주일오전11:00, 수요오후 7:30 T.V. 예배 8:30～9:00A. M. CH. 79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 3: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국인의
화초 도(소)매상
가장 저렴한 가격
전화 : 691-6768
곽 덕열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한 인
연합상사
25-27 Rangemore Rd.
☎ : 251-6578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전기시설 · 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전화: 270-3118 오 현 구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 ~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식 품 점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삼 복 식 품 주 7일 영업,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생 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가내봉제 상세한 문의 바람
전화: 530-1046 10a.m.~5p.m. 368-7258 6p.m이후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히팅·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화 랑

KIM'S ART GALLERY
각종 유화, 동양화 도매, 각종 Picture Frame
1286 Weston Rd. 전화 : 243-0233

운전학교

오행근운전학교
전화 : 423-3035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및 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크로바인쇄소
3351 Lakeshore Blvd. W.
전화 : 251-9587(B) 252-7491(R) 위 정 남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자동차수리

Midwest Auto Body Shop 전화 : 751-9280
▲완전 바디 숍, 신용본위
▲260 Midwest Rd. Unit 8 (미드랜드×로렌스) 임 종 민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3-2157

AL'S ESSO Service
Mechanics Repair (All Maker & Model)
Tune-up, Break Repair, Electronic Repair,
Tire & Battery (한국분에게는 염가로 친절봉사해드림)
400 Front St. W.(C.N.Tower 옆)
전화 : 596-6902, Mechanic 최 양호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연두·이건하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HUMBERVIEW MOTORS
G.M. (시보레·올스모빌)
전화 : (B) 236-1011, (R) 763-1155 손 명 철

매매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장 의 사

장 의 사 (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영정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안내광고(CLASSIFIED)는 저렴한 비용으로
놀라운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전화 : (416)533-2361~4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전화:745-6792(Mr.우)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보약제와 신경통약이 다량 수입되었읍니다.
교민들에게 특별 염가 제공코져 합니다.
전화문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전화 : 596-8407,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531-7505 서 춘봉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서 울 한 의 원
한의사 김 장 석
전화 : 1-212-762-4694 (New York, U. S. A.)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전화 : 530-0522 531-4165(R)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정장우 회계사 (PAUL C. CHENG)중국인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625 Dufferin St. Ste.407 (B)636-3616 (R)690-7153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45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매·도매함
16 Osler St.
☎ : 762-7255, 7256
762-2700

구 인

일본음식과 한국음식 만들수 있는분 구함.
538 St.Clair, W. 전화: 654-6609

남자분 가게 Full Time Helper 구함.
전화: 431-0979

Spray Painter 동업주 구함.
Epoxy Finish 유경험자로
자본 $10,000~$15,000을 투자할수 있는분
자세한 내용은 서면 문의바람.
P.O. Box 3046, Station B,
Rexdale, Ont. M9V 3Z6 Mr. Kim

경험있는 여자자켓 만드실 Full Time 재봉사 구함
(주급 : $220부터~)
전화 : 368-2819 (Mr. Wong)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535-0708 박 명 진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매일 현찰 지불함.
전화 : 922-3061

그리운 혈우여 연락하라, 만나서 술한잔하세!
해병 187기 이성규가 해병 188기 정경태를 찾음.
우리는 1968~69년에 걸쳐 월남 호이안에서 같이 싸웠음.
연락처 : 57 Octavia Street,
San Francisco, Ca. 94102
전화 : 1-415-552-1438

직원모집 (운전면허증소유자)
M & J 인터내셔날·비데오 Co.
◉. Operating 직원
◉. 전기 기술자
◉. 비데오·아케이드 매니저
전화 : 630-0313

Gas Attendant 구함.
전화 : 782-6311

무엇을 찾으십니까?
한국안내광고란을 찾아 보십시요.

광고문의
☎ : 533-2361

구 혼

결혼상담 , 직업소개(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본인은 당년 38세의 신체건강하고 생활력있는 독신 남자입니다. 초 재혼 불문하고 여생을 함께 하실 뜻있는 여성을 찾읍니다. Mr. 박
★주소 : P.O. Box 1217 Station B
Weston, Ont. M9L 2W9

매매및 양도

집 팝니다(Bellwood Queen Area)
6베드·룸. 좋은 조건임(Private Sale)
가격 : $66,000. 영어로 문의바람. 전화 : 445-9486

Copier (복사기)
Model : Mita 500D. (Very Good Condition)
사무실용으로 적합. 전화 : 533-2364 Mrs. 김

성능좋고 속도빠른 사진 식자기
(SAKEN SPICA - K)를 급매합니다.
문의처 : 한국일보사
전화 : 533-2364 Mrs. 김

CAN-AM REAL ESTATE LTD.

Wanted 2 licensed Real Estate sales people to service Ontario's Korean community. A working knowledge of the Korean language is important. You will represent General Development Corporation, one of Florida's largest home builders and community developers.
Top commission, starting salary and manager status available to successfuly applicants.

For Further information:
call T. Hill at 661-1625

Can-Am Real Estate Ltd. Real Estate Broker. Authorized Ontario Representative for General Development Corporation.

OA1430-80
*Ask for and read carefully the Prospectus relating to this offering.

세탁소 매매(Depot)
가격: $39,000 (Washing & Dryer 포함)
Rent: $1,100(Four Bed Room 포함)
리스: 3년 + 3년, 주매상: $900~$1,200
전망이 좋음. 465 Vaughan Rd. Toronto.
꼭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가정 혐편상 Fruit & Grocery Store
급매코져함. (Corner Store)
744 Dundas St. W. (Bathurst & Dundas)

75년도 플라이슬러 (Town & Country Wagon)
Certified $1,000 전화: 270-2709

Building for Sale (All Best Offer)
(각종 어떤 업소에도 적당한 건물임) 아스킹: $105,000
982 Pape Ave. 전화: 422-5029 (Mike)

성업중인 Hamburger Franchise Restaurant 급매
꼭 관심있으신 분만 연락, 내방 바람.
Peterborough, Ont. 전화: 1-705-748-9722 (Mr. Kim)

Yonge St. 에 있는 꽃가게 급매
위치: 리치몬드·힐 지역
넓이: 4000 Sq. F.
주인이 이주관계로 적당한 가격에 급매코져 함.
꼭 관심있으신분 영어로 문의바람.
전화: 773-5530 Mr. Grabner.

ALBANY REAL ESTATE LTD.
1) Hotel: Room-45, (8개월간 영업)
Niagara Falls Restaurant (Tavern), Gift Shop
모두 포함. 가격: $700,000
2) Restaurant Tavern: 건물포함, 2 apartments
가격: $295,000, 다운페이: $75,000
3) Burger - Chicken Take out Only;
스카브로 플라자에 있음. 주매상: $4,000
Call Wm Matevich 251-4656

공장지대 Office Building 안에 있는 경쟁없는
Donuts Shop. 도너스 만드는 시설이 완비되어 있음.
주매상: $3,500~$4,000
Open: 오전 6:00~오후 6:00
아스킹: $150,000
연락처: 665-0790 Mrs. Lee

Milk Store 매매.(여자혼자서 운영할수 있음)
주매상: $3,500 보증, 아스킹: $28,000+스탁
위치: 777 Danforth Rd.

"Fish & Chips" Fast take out Business for Sale
with option to purchase building.
(빌딩도 겸해서 팔수 있음) 전화 : 828-6103

자개, 문갑, 자개 삼층장 매매
전화 : 661-4581

미국이주관계로 꽃가게 급매. 미시사가 초입
Plaza 안에 있음. 전화: 624-7597 (Mr. Lee)

50mm 스피커 달린
Sound-Projector
전화 : 368-2819 Mr. 왕

House for Sale (Private)
3 Bedroom Mortgage($75,000) 13% until 84년
Mortgage 좋은 Side Split Bungalow
가정사정상 급히 팝니다.
Markham × Lawrence
전화 : 439-1433(R) 463-7423(B)

6년동안 한주인이 경영했던 성업중인 큰 규모의
Variety Store 매매
넓이: 1700 Sq.ft. 리스: 8년반, Rent: $1,168/mon.
주매상: $7,000이상+로타리오, 아스킹: $93,000+스탁
790 Military Trail(Morningside &Military Trail)
꼭 관심있으신 분의 내방바람.

성업중인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 렌트: $300(Mon.) 리스: 5년
2988 Lakeshore Blvd. W.

다른 사업관계로 매우 성업중이며 대단히 바쁜
지역의 꽃가게(Retail) 매매. 주변에
Free Parking도 가능함.
넓이 : 3,650 Sq.ft.
전화 : 1-634-9679 John
(오후 6시 이후 연락바람)

농장매매
토론토 서북쪽에 있는 좋은 환경 속에
여러가지 동물(소, 말, 양 등)을 기를수 있는
100에이커의 농장을 가정사정으로 급매
★자세한 문의는 전화 746-3458
(오전11시에서 오후9시사이에 연락바람)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3,500 Rent: $650
리스: 5년 + 5년. 전화: 781-1072

GOOD BUSINESS OPPORTUNITIES

1) 버라이어티 & 그로서리 스토아
매우 좋은 위치에 있음. 좋고 긴 리스(Lease)
주매상: $8,500 이상. 아스킹: $325,000

2) 서북쪽에 위치한 버라이어티 스토아
2년 되었으며 좋은 조건의 Lease임
주매상: $6,500 이상. 아스킹: $190,000

3) Drive in fast food.
3년간 성업중이며 좋은 조건의 Lease임.
주매상: $4,000 이상. 아스킹: $195,000

4) 도너츠 숍(Shop)
최고의 Lease조건과 좋은 위치에 있음.
주매상: $4,500 이상. 아스킹: $250,000

5) Drive in fast food.
매우 좋은 위치에 있고 최고의 Lease조건
주매상: $10,000이상. 아스킹: $525,000

For more details(상세한 문의는-)
전화: 967-1151 Ben
Benhur Real Estate Ltd.

하우스 렌트

Detached Building
버라이어티 또는 도너츠가게를 하기에 최고의 조건을 구비한 건물이며 또한 최고의 리스조건을 갖추고 있음.
넓이: 2,400 Sq.ft. 20여대의 차를 Parking시킬수 있음.
(Airport & Derry Rd.)
전화 : 967-0019 Sam (오전9시부터 오후7시까지)

방세놓읍니다. (College & Brunswick)
부엌과 목욕탕, 출입구 따로 되어있고 혼자서 생활하기에 적합함. (지하실: Mon/$200) 전화: 923-6236

Bloor한인상가 중심부에 위치한 가게 Lease함.
선물센타나 금·은방에 알맞음.
전화 : 481-3677 (Frank)

가게 Rent 합니다.
698 Bloor St. W. (1500 Sq.ft.)
전화 : (B)533-7966, (R)826-5118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우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884-5573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가구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석민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도서판매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p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243-8026(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광고문의 533-2361

백화점

미도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사무용구및 계산기

SKY WAY Business Machines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전화 : 675-1295 김 인환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
COMMERCIAL · ART PHOTOS · WEDDINGS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3시30분~오후9시30분

Peter's Photography.
광고, 결혼식사진 전문. 전화: 270-2709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MISTER O FOR MEN
전화 : 964-2606, 869-0589, 275-2187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스포츠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 745-1632(R) Mr. 마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 한국일보 안내광고 *

2ND CLASS MAIL NO. 5248